

Weekly 공감

2010.10.06 No.79
gonggam.korea.kr

G20 SEOUL SUMMIT 2010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길 '공정한 사회'

www.korea.kr

G20 SEOUL SUMMIT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기념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

개막강연

박 세 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100년 전의 대한제국, 100년 후의 대한민국

2010.10.01 금요일 오후 6시 30분

폐막강연

조 정 래 (소 설 가)

인간적인 삶과 경제와 우리의 미래

2010.10.29 금요일 오후 6시 30분

- 일 자 : 2010년 10월 1일 ~ 10월 29일
- 시 간 : 화~금 오후 7:00, 토~일 오후 5:30, 월요일 휴강
- 장 소 :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
- 강 사 : 공병호, 구수환, 금난새, 김경훈, 김광웅, 김용택, 김정운, 김학준, 나경원, 민경욱, 박경철, 박범신, 션, 양승룡, 유홍준, 윤평중, 이광석, 이상묵, 이석연, 이석형, 이원복, 이자스민, 조봉한, 주철환, 최재천, 한비야, 홍준표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주 관 : METAWIN

후 원 :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NH농협 협 찬 : Krispy Kreme JUMP Incruit 인크루트

왜 지금 '공정한 사회'가 화두인가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분단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땀과 눈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변방의 나라가 한 세대 만에 다른 나라를 돕는 세계의 중심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정도의 화려한 성과 옆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자살률과 낮은 국민적 행복지수,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적 불신이 혼재합니다.

기적의 압축성장은 빛과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발전과 성장의 뒤안길에서 편법과 반칙이 횡행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앞만 보고 질주하던 때 우리는 정의와 공정성에 주의를 돌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숨을 고르게 된 지금 정의와 공정한 사회제도의 중요성에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불공정 관행이 판치고, 많은 시민이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회가 선진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불공정한 사회가 선진국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각자가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가질 때'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공정한 사회'는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노력과 능력에 맞는 처우를 인정하며, 사회적 약자의 부활을 격려하고, 서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사회입니다. 결국 공정한 사회는 한국사회를 도약케 할 무형의 가치이자 사회운영의 원리이며, 공동체적 삶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몇 달 사이에 40여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어려운 철학책에 관심이 폭발하고, '정의' 열풍이 부는 것일까요. 바로 정의와 공정성의 화두가 우리 시대의 흐름을 짚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우리 마음의 빈터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단호한 공동체적 결의가 바로 공정한 사회의 이념입니다.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역지사지하되,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대해 성찰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각종 제도와 법절차 개선의 목표를 공정성의 제고에 맞춰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 위에서만 '선진 대한민국'의 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할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G



Weekly
2010.10.06
No.79(통권 180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FIFA U-17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뒤 시상식을 마치고
한데 모여 기쁨을 나누고 있는
한국대표팀 선수들.
사진 · 연합





24 일러스트 · 이우정



10



20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10.0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기 획 특 집

선진 대한민국의 꿈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주창한 이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의 균형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자율·공정·책임의 대한민국, 선진 일류국가로 향하는 실천방안입니다.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78호(9월 22/29일자) 기획특집 '미리 보는 4대강 36景'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람·자연이 더불어 사는 4대강살리기 "파이팅"

"4대강살리기가 단순히 강을 살리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인간과 환경이 조화롭고 행복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까지 반영한다는 사업 구상도 좋습니다. 환경과 문화, 역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다목적인 사업이 돼야 성공을 거두리라 봅니다."_woosr0507

"4대강살리기로 주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접목해 이야기가 있는 강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생태계까지 복원한다면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상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명소로 조성될 4대강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질까지 높아질 거라고 믿습니다."_최남이

"4대강 복원으로 시민 위한 어메니티 공간 되길"

"친환경 수생공간을 조성하는 4대강살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이 어우러진 기사를 보니 4대강 모두를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4대강살리기 사업이 완성돼 서울 청계천이나 울산 태화강처럼 시민들을 위한 어메니티(Amenities·편의시설)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_김은미

"'미리 보는 4대강 36景'을 기사로 만나니 생태계가 복원된 4대강의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맑은 물에 물고기가 노니는 정화된 4대강은 우리에게 주는 자연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4대강을 잘 정비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금수강산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 뜻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_송재하

78호 중점기획 '4대강변 농경지, 옥토로 거듭난다'를 읽고 독자가 보낸 의견입니다.

"4대강살리기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던 제게 '농경지 리모델링'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4대강도 살릴 수 있다니 일석이조인 사업 같아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네요. 앞으로 매년 여름 농경지 침수 피해로 마음고생 심했던 농촌 사람들도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된 농경지에서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_윤종현

78호 '포토 뉴스 / 책과 함께한 우리들의 초상화'를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지만 정작 책을 읽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독서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읽듯, 저도 재미있게 독서해서 올가을엔 꼭 책벌레 소리를 듣고 싶네요."_이순호





알립니다

가을 해안의 아름다움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여유로운 가을 해안을 알리는 사진과 시, 수필을 공모합니다. 해안의 사계절을 주제로 지난 겨울과 봄, 여름에 이어 추진되는 4번째 공모전으로, 우리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공모 부문 | 사진, 시, 수필
참가 대상 | 국민 누구나
접수 기간 | 11월 4일까지
접수 방법 | 국토해양부 해안 초광역 개발 홈페이지 배너 접수. 사진은 JPG 파일, 시는 hwp · word · PPT 파일이 가능하며, 수필은 hwp A4 11포인트 2장 내외로 작성해 첨부
수상자 발표 | 11월 30일 예정. 홈페이지 게재 및 수상자 개별 통보
시상 내용 | 분야별로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3명) 등 총 15명에게 상금 및 상장 수여

국토해양부 해안권발전기획단 ☎ 031-436-8917 mltm.go.kr/coast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을 공모합니다.

공모 내용 | 사회통합위원회의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참고해 노사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소외계층의 포용 문제,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대립 완화방안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완화하는 구체적, 실천적 방안을 담은 논문 형식의 글
참가 대상 | 현재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휴학생,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며 3인까지 공동 참여 가능
접수 기간 | 10월 15~31일
접수 방법 | 논문(A4 20장 내외)과 논문 요약본(A4 2장 내외)을 작성해 사회통합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수상자 발표 | 11월 중 예정
시상 내용 | 입상작 11편을 선정해 상금 총 2천5백만원 수여 예정

사회통합위원회 ☎ 02-2180-2717 harmonykorea.go.kr

공감 ♥ 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10월 13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얼마 전 자기 전 재산의 99퍼센트를 사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중국의 인기배우. 영화 〈영웅본색〉 하면 누군지 아시겠죠?
3. 공연히 입안에 도는 침.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니 OO이 돈다."
5. 나룻배 등을 모는 사람. "OO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7. 집안의 운명을 지고 나갈 만큼 중요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너는 우리 집안의 OOO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9. 무슨 일을 하기에 알맞은 시기. "이번 OO를 놓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세 로

1.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은 사람이 신랑, 신부와 하객에게 하는 축사.
2. 여럿 중에서 특히 뛰어남. "그 학생은 OO의 실력으로 그 시험에 합격했다."
4. 서양식 침상.
6. 공평하고 올바름. "이명박 대통령이 후반기 핵심지표로 OO한 사회를 표명했습니다."
8. 씨름 기술의 한 가지. 상대방을 껴안아 들어올리면서 자기 몸을 슬쩍 돌려 넘어뜨리는 기술이죠.

〈Weekly 공감〉 77호(9월 15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여왕벌 3 나주 4 초대 7 간이 9 가위바위보
세로 1 여주 2 벌초 5 대장간 6 한가위 8 이포보

〈Weekly 공감〉 77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은선 · 충남 논산시 취암동
김태현 · 경기 군포시 수리동
오정민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조영미 · 인천 남구 숭의1동
황송화 ·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1리

GONGGAM 공감 라운지 KOREA

스타 홍보대사 초대석

나는 오늘도 '사람의 산'을 오른다

엄홍길 기상청 홍보대사

'히말라야 산맥의 해발 8천 미터가 넘는 봉우리 16개를 세계 최초로 등정한 산악인'. 강연을 하기에 앞서 주최 측이 으레 소개하는 나의 경력이다. 사람들은 나의 성공 이야기에 주목하고 열광한다. 어떻게 다른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높은 산을 16개나 올랐느냐고.

하지만 성공 못지않게 많은 실패와 좌절도 경험했다. 37전38기로 해발 8천 미터가 넘는 16개 봉우리에 모두 올랐지만 함께 산에 오르던 동료 등반대원 6명과 셰르파 4명을 잃었다. 나 자신도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으니 나는 철저하게 실패한 셈이다. 그들의 희생과 하늘의 도움으로 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일러스트 · 문지혜

이젠 더 이상 높은 산에 오를 일도 없다. 얼마나 높은 산을,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는 횟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게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를 살려 보내니 더 큰 일을 하라는 산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숱하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히말라야의 산들과 38번이나 씨름한 후에야 깨달았다. 산속에 '사람'이 있고, 사람 속에 '희망'이 있음을. 내가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산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산 정상을 오르는 것보다 사람의 산을 오르내리며 온기를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사람의 산'을 오른다. 나를 받아주고 돌려보내준 산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안타깝게도 히말라야는 요즘 예전 같지 않다. '신들의 거처'라고 불리던 거대한 설산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히말라야의 눈과 빙하가 녹아내려 바위가 군데군데 드러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에베레스트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꾸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앗아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모두가 인간의 이기심이 낳은 결과다.

산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산의 신비한 매력에 모두가 빠져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산이 더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에베레스트도 신들이 살던 예전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산을 소유하려 들지 말자. 산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후손들에게서 잠시 빌린 것이며 온전하게 그대로 물려줘야 함을 잊지 말자.

글 · 엄홍길(산악인)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유은경 대전 중구 문화1동

1.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이용과 양조기술연구실'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앞으로 양조기술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 전통주를 세계 명품주 반열에 올리고 동시에 한식세계화와 농가소득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이번 기획특집 기사들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4대강의 36경(景)을 머릿속으로 선명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수변공간 조성에 아울러 역사문화유적의 복원에도 큰 의미를 둔 4대강 36경이 세계 4대 문명처럼 신르네상스의 기원을 이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3. 자전거 타기에 더없이 좋은 가을입니다. 가족이나 연인끼리 자전거 여행하기에 좋은 녹색 여행길을 추천해주세요.

손혜진 경기 안산시 상록구

1. '금강 따라 백제의 문화 혼이 흐른다'라는 세계대백제전 관련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여행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대백제전의 공연이나 프로그램 내용, 특히 행사장을 그림지도로 실어 정보 제공이 잘된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찾아갈 예정입니다.

2. 각 지역과 강의 특성을 반영해 4대강 수변 생태경관을 만들고 생태복원을 한다니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해외 유명 친환경 강들처럼 우리나라 강들도 재탄생한다는 소식에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자전거로 대한민국 강 투어를 떠나고 싶습니다.

3. 단풍 구경하러 등산할 생각입니다. 가볼 만한 산을 소개해주시고 등산할 때 유의할 점이나 필요한 소지품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0월 6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공정한 사회, 비전 보인다'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국립공원관리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제10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작품소재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 및 24개 도립공원

공모부문
자연경관 _ 국립공원 자연경관, 기상현상, 국립공원 시설
자연생태 _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희귀생물자원
역사문화 _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 역사문화유산 등
공원이용 _ 국립공원 탐방, 자연해설, 생태관광, 등산 등
도립공원 _ 우리나라 24개 도립공원의 자연경관 (대표적 경관)

공모기간 2010. 10. 01. (금) ~ 10. 14. (목)

공모형식 필름 _ 컬러 슬라이드 / 디지털 _ 1,200만화소 이상 jpg파일

공모방법
11×14 inch 인화 후 뒷면 출품표 부착 제출
입상 후보작 통보 후 10일내 원본 필름 및 디지털파일 (CD) 제출

출품장소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 (Tel.02-3279-2844 / Fax.02-3279-2846)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29 태영빌딩 8층 (121-717)

시상내역
대상 (환경부장관상, 상금 500만원) 1점, 최우수상 (이사장상, 상금 300만원) 2점 등
총 110점 (총 상금 4,200만원)

※ 자세한 공모요강 및 출품표양식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nps.or.kr**) 참조

주최 국립공원관리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후원 환경부 자연공원협회
협찬 lafuma France 롯데칠성음료(주)



동아DB

지난 6월 27일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회원국, 비회원국 대표들. G20 정상회의는 '공정한 지구촌'을 펼치는 장이 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 비회원 5개국 초청

'개발 이슈' 의제는 '공정한 지구촌' 향한 대한민국의 제안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한 사회'가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정한 지구촌'으로 확대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비회원국 초청 대상을 확정해 그들에게 참여의 장을 열어주었으며, 개발도상국의 주요 관심사인 '개발 이슈'를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하고 논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초청할 비회원국과 국제기구 규모와 명단이 확정됐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말라위, 에티오피아, 베트남, 싱가포르, 스페인 등 5개국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초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들 국가 외에도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 있는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 7개 국제기구도 초청했다.

아프리카 대륙 대표로 말라위·에티오피아 참가

G20 정상회의에 대한 비회원국 초청은 '5개국을 넘기지 않는다'는 회원국 간 합의에 따라 5개국에 한정했으나 지원이 절실한 아프리카 비회원국을 2개국으로 하는 등 비회원국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

G20 정상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우리 국민 누구나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길이 열렸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9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광장에서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G20 정상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G20 정상에게 말하세요' 캠페인 개통식을 가졌다.

'G20 정상에게 말하세요' 캠페인은 밀레니엄광장에 설치된 부스나 온라인에서 원하는 G20 정상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는 국민참여 프로그램이다. 10월 30일까지 코엑스 밀레니엄광장, 이동식 차량,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 02-398-9659 www.seoulsummit.kr

아프리카 대륙 대표로는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인 말라위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 의장국인 에티오피아가 참가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최초 회의임을 감안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인 베트남도 초청된다.

싱가포르는 유엔에서 G20와 협력을 추진하는 28개국 모임인 3G(Global Governance Group)의 의장국 자격으로, 스페인은 G20 정상회의에 4차례 초청된 관례에 따라 포함됐다.

비회원국 참여 확정에 따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제 중 하나인 '개발 이슈' 논의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유치가 확정된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반 번영하고 협력하는 '공정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개발 이슈'와 개도국의 금융 안정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확정되도록 주도해왔다.

"선진국·개도국이 함께 번영하는 협력의 장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될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공정한 지구촌'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는 공정한 지구촌을 향한 대한민국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월 20일(현지 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러시아는 G20, 브릭스(BRICs)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한국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의 입장을 반영해 공정한 지구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20 준비위원회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개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10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다 함께 성장하기 위한 개발 파트너십'을 주제로 고위급 개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영국 국제개발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앨런 윈터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원혁 정책연구실장, 세계은행 상하수도프로그램의 소재향 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참가해 G20 정상회의를 통해 개도국의 개발과 교역능력 확대, 성장과 식량문제 해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게 된다. G

글·박경아 기자

G20 정상회의 개최 기념 릴레이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전문가에 묻는다

각계 유명인사들이 10월 한 달간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한 릴레이 강연회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주최하는 이번 강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강연자로 참가한다. 대한민국 선진화 담론을 주창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10월 1일 첫 강사로 나서 '1백 년 전의 대한민국, 1백 년 후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한 것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한국사회의 나아갈 길을 탐색하는 릴레이 강연이 이어진다.

10월 2일에는 방송인 주철환 씨가 '세종대왕의 PD 마인드', 10월 3일에는 금난새 유라시안필하모닉 지휘자가 '하모니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했다. 월요일에는 강연이 없고 토요일에는 두 건의 강연이 잇따라 열린다. 강연 시간은 화~금요일 오후 7시, 토·일요일은 오후 5시 30분.

문화체육관광부 ☎ 02-3704-9542 www.mcst.go.kr
G20 정상회의 기념강연사무국 ☎ 02-3789-4933

강연회 일정(10월)

일시	강연자	주제
10.6	션 가수	나눔으로 더 커지는 사랑의 나무
10.7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	바람직한 미래 정부
10.8	이광석 인쿠르트 대표	네 나이에도 CEO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10.9	박범신 소설가	사람으로 아름답게 사는 일
10.10	김경훈 점프공연 제작자	꿈꾸는 사람들의 힘, 세계를 우리 품안에! JUMP!
10.12	이상묵 서울대 교수	장애인, 컴퓨터 그리고 선진사회
10.13	한비야 국제구호 전문가	위대한 국가를 향한 사랑의 씨앗을 심어라
10.14	이석형 전 함평군수	지방자치의 블루오션과 창조경영
10.15	조봉한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스마트 기업으로 가는 길
10.16	박경철 의사, 저술가	미래산업 패러다임의 변화-G20 관점에서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번영과 성공의 길
10.17	김용택 시인	문학과 예술로 세상을 그린다
10.19	이자스민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	다문화가 한국의 힘이다
10.20	구수환 PD	사람들은 왜 이태석 신부를 눈물로 기억할까?
10.21	홍준표 국회의원	중심국가로 가는 길
10.22	양승룡 고려대 교수	선진국의 길, 자본주의의 그늘을 보듬어라
10.23	이석연 전 법제처장	공정한 사회, 법치의 길을 묻다
	나경원 국회의원	인권과 법질서
10.24	유홍준 명지대 교수	한국 건축과 문화의 정체성 어디에 있는가?
10.26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혼화(混和)의 시대-소통과 통섭
10.27	이원복 덕성여대 교수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
10.28	민경욱 KBS 기자	민주사회의 토론, 그 소통방식에 대하여…
10.29	조정래 소설가	인간적인 삶과 경제와 우리의 미래
	대학생 G20 영앰버서더	미래세대에게 들어보는 대한민국 선진화

한글날, 국제적 축제로 자리매김

'한글, 세상과 어울림'… 564돌 한글날 기념행사 풍성

한글날을 기념해 올해로 3년째 한글주간 행사가 열린다. 한글주간에는 '한글, 세상과 어울림'을 주제로 글꼴 전시, 춤과 노래, 이야기 마당 등 다문화 시대에 어울리게 국내외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가 펼쳐진다.



동아DB

올해 한글주간 행사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한글이 가지고 있는 소통과 어울림의 가치를 자유롭게 느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10월 9일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날이다. 이제 한글은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에서도 그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 반포 5백64돌을 기념해 10월 4일부터 10일까지를 한글주간으로 정했다. 한글주간에는 '한글, 세상과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각종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한글주간의 특징은 소통과 어울림이라는 주제에 맞게 보는 전시에서 참여하는 전시가 늘었다는 것이다. 10월 7~9일에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뜰에 세운 특설무대에서 한글을 소재로 한 춤, 이야기, 노래 마당이 펼쳐진다. 7일에는 밀물현대무용단이 선보이는 한글 춤마당, 8일에는 KBS 〈낭독의 발견〉 공개방송 무대로 여는 한글날 전야제, 9일에는 아름다운 노랫말이 담긴 음악회를 만날 수 있다.

8~17일에는 한글날 기념전시인 '한글 글꼴전'이 한글 창제 당시 집현전 터인 경복궁 수정전에서 열린다. '글꼴'을 중심으로 한 한글의 문자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무한한 창조적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한글의 전통 글꼴에서부터 글과 영상을 결합한 뉴미디어아트, 다문화 시대에 어울리는 생활 속 글꼴까지 선보인다.

'한글, 아름다운 문장 100선' 시민 공모전

또한 참여하는 잔치의 한마당으로 '한글, 아름다운 문장 1백선' 시민 공모전도 1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아름답고 실용적인 한글 옷을 다채롭게 경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김영란 전 대법관, 산악인 엄홍길 씨 등이 한글 옷을 입고 맵시 자랑을 펼치며 KBS 〈미녀들의 수다〉 출연진도 함께한다.

이제 한글날 행사는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국제적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받은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성인훈련원의 멘데스 바랠라 플로랑소 대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한글주간의 특징은 소통과 어울림이라는 주제에 맞게 보는 전시에서 참여하는 전시가 늘었다는 것이다. 한글을 소재로 한 춤 공연과 노래 마당 외에도 한글의 전통 글꼴에서부터 글과 영상을 결합한 뉴미디어아트, 다문화 시대에 어울리는 생활 속 글꼴까지 선보인다.

'한글 글꼴전'에 전시된 소통을 주제로 한 투시도.

표와 독일 주립교사 훈련 및 학교 개발기관의 가브리엘 라브킨 대표도 한글날을 맞아 한국을 찾는다.

한글의 세계화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학당은 중국, 몽골, 베트남, 미국, 러시아 등 7개국 17개소에 대학 내 한국어학당을 개설하고 한국어 보급 확산과 한국어의 국제적 교육브랜드 육성에 힘써 결실을 보고 있다.

특히 2007년에 개설된 몽골의 몽골국립대 세종학당의 경우, 자매결연을 한 공주대가 교원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친 덕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중국·몽골·베트남 등 7개국 대학 내 한국어학당 개설

한글 관련 학회나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벌여온 한국어 알리기를 위한 노력도 알찬 열매를 맺고 있다. 훈민정음학회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을 가르쳐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 9월 말 베트남에 태권도학과 학생 10명을 파견한 계명대는 10월부터 12주 동안 베트남 공안부 요원과 대학생, 하노이 거주 시민 등을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병행해 실시한다.

이 밖에도 점자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 장애인과의 소통을 돕기 위한 '생활 속 점자' 전시도 7~9일 개최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한글 놀이뮤지컬, 외국인 한글 글씨 쓰기 대회 등도 열린다.

올해 한글날 경축식은 조선시대 세종 때의 최고 잔치로 꼽혔던 회례연(會禮宴)을 원용한 축하 행사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김혜주 사무관은 "한글주간 행사가 국적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말과 글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최은성 객원기자

권재일 국립국어원장

"과학성·독창성이 우리글 가치"



조영철 기자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생 기록을 가지고 있는 문자이자 세계 어느 나라 말이나 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과학적인 언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획을 하나 더한 것만으로 또 다른 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만큼 다양한 글과 말을 만들 수 있는 독창성이 있었기에 수많은 역사적 고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이제는 우리말과 우리글이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권재일 국립국어원장은 우리말, 우리글의 가치가 지금까지 존속될 수 있었던 힘은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서 나온다고 힘주어 말했다.

5백64돌 한글날을 맞아 권 원장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으로 국립국어원 청사 외벽에 '한글, 고맙습니다'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내건다. 이 현수막의 글씨체는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인 구지혜 씨(본명 구엔티 마이곡)가 쓴 것이다.

"그녀의 서투른 한글체를 그대로 살림으로써 한글 문화권에 새로이 진입한 다문화가족들을 환영함은 물론 한글이 점차 세계인의 글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겁니다."

권 원장은 또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초·중·고급 과정의 말하기, 쓰기, 읽기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2009년 4월 부임 이후 그가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인 일은 행정, 방송, 교육 등 공공언어의 오·남용을 바로잡는 것이다. 부임 직후 공문서 바로 쓰기 책자를 만들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에 배포하면서 어려운 한자 대신 행정용어를 알기 쉽게 쓰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지상파 방송 3사의 드라마, 오락, 체험 프로그램 등을 분석해 바른 말 쓰기를 이끌기도 했다. 실제로 인기 프로그램인 MBC 〈무한도전〉은 국립국어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속어를 줄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말과 글은 소통의 도구라고 말하는 권 원장. 한글주간만이라도 말이나 글을 쓸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어휘 선택을 고민한다면 우리말 우리글의 힘이 더욱 세질 것이라는 게 그의 이야기다.

김장철 대비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

중국산 신선배추 1백톤·무 50톤 긴급 수입

배추 등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산 신선배추 1백 톤과 무 50톤을 긴급 수입해 공급을 늘리고, 김장철에 대비해 농협배추의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가을배추와 무가 나올 때까지 당장 공급을 늘리기 위해 10월 중순까지 고랭지 채소 잔량(배추 2만 톤, 무 8천 톤)을 조기 출하하고,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만6천 톤 정도의 얼갈이배추로 대체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월 중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국산 신선배추 1백 톤과 무 50톤을 긴급 수입한다. 연간 수입되는 신선배추가 1백~2백 톤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물량이다.

원활한 수입을 위해 현재 배추에 27퍼센트, 무에 30퍼센트 적용되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고 검역과 통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단, 중국산 채소류의 일시적인 수입 급증으로 유통질서가 깨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역과 식품안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양제 보급, 재배기술 지도 강화 등을 통해 가을배추 공급도 5만~10만 톤 늘리기로 했다. 생육이 불량한 배추에는 영양제를 공급하되 국고에서 80퍼센트를 보조한다. 또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병충해 방제, 관·배수, 영양제 살포요령 등 기술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소 1~4월께 출하되는 농협 계약재배 월동배추도 12월 중에 조기 출하하기로 했다. 올해 계약재배 물량은 지난해 15만6천 톤보다 많은 19만 톤(배추 14만 톤, 무 5만 톤)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5만~6만 톤 수준의 가을배추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추 외에 김장철 수요가 큰 마늘과 고추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조기 도입도 추진된다.

10월 중순까지 고랭지 채소 조기 출하

우선 배추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민간업자의 수입 업무를 대행하거나 직접 수입에 나서기로 했다. 마늘은 1만4천4백67톤의 TRQ 물량 가운데 2천2백63톤의 잔량을 10월까지 도입해 김장철에 공급하고, TRQ 물량을 1만2천 톤 더 늘리기로 했다. 고추는 계약재배 물량 1만5천 톤과 TRQ 물량 7천1백85톤을 11월에 동시에 풀어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 및 태풍 등으로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정부는 농협배추 물량 확대, 중국산 배추 수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김장 두 번 담그기' 운동을 벌여 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범정부 차원의 김장시장을 열어 시중가보다 10~20퍼센트 싼 가격에 배추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사재기,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중으로 이상기후에 대비한 채소류 중·장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설재배와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에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며 직거래 확대 등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한다. G

글·이혜련 기자

'인플루엔자' 주의보… 백신접종 하셨나요

'신종플루' 대신 '인플루엔자'로 명칭 변경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0월 1일 '유행성 독감 주의보'를 내리고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게 백신접종을 권고했다.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만성질환자, 50세 이상 성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생후 6~23개월 소아, 임신부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도 39주차(9월 19~25일)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외래환자 1천명당 4.48명으로 유행 기준인 2.9명을 초과했다며 유행성 독감 주의보를 내리고 일반 국민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 유행성 독감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9월 8일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A/H1N1 2009' 바이러스와 'A/H3N2형' 계절바이러스가 확인된 이래 최근에는 인플루엔자 'A/H3N2형'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일으켰던 'A/H1N1 2009' 바이러스는 'A/H3N2형' 계절바이러스에 비해 매우 낮게 검출되고 있다.



동아DB

유행성 독감이 돌 때는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고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우선접종 대상자 355만명 무료 예방접종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 형성을 막기 위해 신종인플루엔자가 계절독감의 일종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신종플루' 대신 일반 계절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로 명칭을 바꿔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이번 유행성 독감과 관련해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이외에도 24~59개월 아동, 신경·근육질환자 등과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사람,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및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 등도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자에 추가하고 백신접종을 권고했다.

전국 보건소 2백53곳에서는 10월 4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의료수급권자 등 우선접종 대상자 3백55만명을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3가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보건소는 또 9월부터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이 아닌 만 19~49세 일반 성인 중 희망자에 대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쓰고 남은 신종플루 백신 7백80만명 분이 마련돼 있다.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이 3가백신을 맞으려면 일반 병·의원을 방문해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도 백신 비용만 받고 접종해준다. G

글·박경아 기자

유행성 독감 백신접종 안내

백신 종류	예방 효과	접종 대상	접종 장소
계절인플루엔자 백신(3가)	A형H1N1, A형H3N2, B형 바이러스 3종 모두 예방	고위험군 및 예방접종 희망자	병·의원(유료) 및 보건소(유·무료)
신종인플루엔자 백신(1가)	A형H1N1 바이러스 1종만 예방 가능	만 19~49세 건강한 성인 중 희망자	보건소(무료)

질병관리본부 ☎ 1577-1280 www.cdc.go.kr



4대강에 '커다란 물그릇'을 만들기 위해 짓고 있는 16개 보 중 하나인 낙동강 낙단보.

4대강 16개 보 건설, 공정률 50% 넘었다

제방·생태공원 조성 등 전체 공정은 26.7퍼센트 완료

4대강에 짓고 있는 16개 보(洑) 건설 공정이 절반을 끝냈다. 4대강 하도 준설작업도 3분의 1을 마쳤다. 보 건설과 하도 준설작업 등 전체 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4대강살리기 사업, 생명살리기라는 목표점이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커다란 물그릇'을 만들기 위해 4대강에 들어서는 16개 보(洑) 건설 공정이 절반을 넘어섰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4대강에 건설 중인 16개 보의 공정이 51.3퍼센트에 달해 공사의 절반을 끝냈고, 특히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59.1퍼센트를 마쳤다고 10월 1일 밝혔다.

보 이외에 강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치우기 위한 하도 준설도 1억6천7백57만8천 세제곱미터를 끝내 전체 하도 준설 목표(5억2천1백10만8천 세제곱미터)의 32.2퍼센트를 마쳤다.

4대강살리기의 목적인 ▲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복합공간 조성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핵심이 되는 부분이 보 건설과 하도 준설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강바닥의 퇴적물을 목표대로 준설하고 한강(3개), 낙동강(8개), 금강(3개), 영산강(2개) 등 4대강에 16개 보가 완성되면 8억 톤의 용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상주시의 낙동강 낙단보 76% 공정 마쳐

4대강에 설치되는 보들은 기본적으로 하천부지보다 낮게 설치돼 강이 범람해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기존의 고정보와 달리 가뭄이나 홍수 때 수위 조절을 위해 부분 또는 완전 개폐가 가능하도록 가동보로 지어지고 있다.

가동보는 문의 작동방식에 따라 ▲둥글게 돌아가는 회전형 수문 ▲앞으로 기울었다 섰다 하는 전도식 수문 ▲오르내리는 승강식 수문으로 구분된다.

16개 보 가운데 가장 공정이 빠른 보는 경북 상주시에 위치


낙동강 낙단보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조감도.

한 낙동강 낙단보로 75.91퍼센트의 공정을 마쳤다. 낙단보는 양쪽 제방 사이 보 길이가 2백86미터로, 충남 공주시에 짓고 있는 금강 금강보(전체 길이 2백60미터)에 이어 16개 보 중 두 번째로 길이가 짧은 보다.

지난 8월 13일 부분 완공돼 4대강 가동보 중 처음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공개한 충남 연기군의 금강 금남보는 70.8퍼센트 공사를 마쳐 두 번째로 공정이 빠르다. 세 번째로 공정이 빠른 보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영산강 승촌보(전체 길이 5백40미터)로 보 공정이 70.06퍼센트 진행됐다.

강별로는 영산강(62.92퍼센트), 금강(53.91퍼센트), 낙동강(51.01퍼센트), 한강(41.06퍼센트) 순으로 보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16개 보 주변에는 물고기가 오르내릴 수 있는 어도(魚道)를 만들어 보의 위아래 간 생태계 단절 문제를 해소하며, 보의 양쪽 끝 또는 한쪽 끝에는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해 시간당 2억7천8백여 만 킬로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설계된 16개 보 주변엔 자연친화적 수변공간이 조성된다.

보와 하도 준설 이외의 제방과 생태공원 조성 등 전체 공정은 28퍼센트가 완료돼 당초 계획(26.6퍼센트)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채소값 급등은 4대강 사업과 무관"

4대강변 채소 경작지, 전체의 1.4%에 불과

최근의 채소값 급등과 관련해 일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재배면적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줄어든 채소 재배면적은 전체 채소 재배지의 1.4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상추, 무, 배추 등 채소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름철에 반복된 폭염과 잦은 강우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작황이 부진해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9월 29일 밝혔다.

농업 관측을 담당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이번 채소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을 여름철 폭염과 잦은 강우로 엽근채류, 과채류 출하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시작되기 전 4대강변 하천 둔치의 채소 재배면적(2009년 7월 기준)은 3천6백62헥타르로 전체 채소 재배면적 26만2천9백95헥타르의 1.4퍼센트에 불과해 4대강변 채소 경작지의 감소는 물가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출하되고 있는 무, 배추는 4대강 유역과 전혀 관계없는 강원도 정선, 태백 등 고랭지에서 출하되는 물량으로, 배추의 경우 여름철 이상 고온으로 병들거나 상품성이 떨어져 생산량(15만1천 톤)이 예년(25만2천 톤)에 비해 40퍼센트 정도 줄었다.

올해 이상 기온은 거의 모든 채소류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 감소를 초래했다. 무는 전년보다 18퍼센트 줄었으며 마늘 생산량 역시 전년보다 24퍼센트 감소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가 모두 6천7백34헥타르(2010년 8월 기준)로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의 0.38퍼센트에 불과하다고 9월 3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 전체가 채소 재배지는 아니며, 경작 중인 작물이 있는 경우 대부분 수확기 이후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또한 경작 작물은 벼, 보리와 토마토, 배추, 무, 당근, 상추 등 채소, 그리고 수박, 참외 같은 과일 등으로 다양해 특정 품목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상기후 등으로 공급량이 부족해 채소 값이 폭등한 것을 4대강살리기 사업 탓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지적했다.

4대강살리기 사업 분야별 공정

2010년 9월 30일 기준

구분	세부 항목	계획	실적
4대강 공정	전체	26.6%	28.0%
	한강	30.0%	30.5%
	낙동강	25.2%	27.0%
	금강	32.5%	34.0%
	영산강	23.9%	23.7%
16개 보	전체	50.3%	51.3%
	콘크리트 타설 물량	758,852㎥ (53.2%)	843,272㎥ (59.1%)
하도 준설	전체	149,662,000㎥ (28.7%)	167,578,000㎥ (32.2%)



동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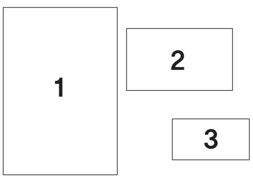
동아DB



동아DB

서울 수복 60주년 기념 국군의 날 행사

늠름한 대한민국 국군에 뜨거운 박수를!



1 9월 28일 오전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에서 6·25전쟁 60년 및 서울 수복 기념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다. 서울 수복 당시 참전용사인 이서근 예비역 해병 대령과 강동구 예비역 해병 준위가 태극기를 게양한 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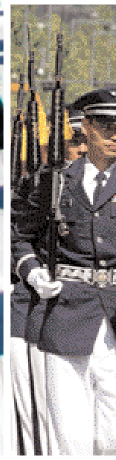
2 국군의 날 기념식 후 펼쳐진 시가 퍼레이드에서 사관생도들이 국군 군악대, 각국 참전용사들과 함께 늠름한 모습으로 행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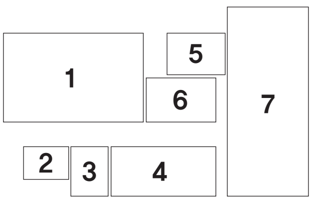
3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힘차게 행진하고 있다.

연합









1 퍼레이드에 앞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이 특공무술 시범을 보였다.
2 가족과 함께 국군의 위용을 보러 온 어린이들은 늠름한 의장대와 생도대의 행진에 놀라움과 박수를 보내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3 지금은 노병이 된 터키의 참전용사가 경례를 하고 있다.
4 육해공군 의장대장(각 군 준장)의 지휘 아래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각 군 의장대장 뒤에는 전군 부대기를 든 기수단이 뒤따랐다.
5 6·25전쟁 참전국의 군악대와 의장대도 참가해 서울 수복 60주년 및 국군의 날 행사를 축하했다.
6 공군 의장대의 멋진 모습.
7 9·28 서울 수복 60주년과 국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육해공 입체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하늘에서는 공군 블랙이글스 전투기 편대가 축하비행에 나섰다.







동아DB



연합





동아DB



동아DB

1



패션과 문화 가을밤에 물들다

국립중앙박물관서 한국패션문화페스티벌 개최

캣워크를 비추는 오색찬란한 조명이 가을밤의 은은한 달빛을 무색하게 한다. 모델들의 당당하고 활기찬 발걸음을 따라 숨죽인 관중의 시선이 바쁘게 움직인다. 멋들어진 옷맵시, 디자이너의 열정과 개성이 묻어나는 각양각색의 의상들, 입체 비디오 매핑(Mapping)과 홀로그램을 이용한 화려하고 웅장한 미디어아트. 갈수록 신비감을 더하는 패션의 향연에 매료돼 여기저기서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온다.

패션과 다양한 장르의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패션문화페스티벌'이 9월 3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막을 올렸다. '패션, 문화에 물들다'를 주제로 한 이 행사는 국내 패션디자이너 10명과 그래픽·공간·미디어 아티스트 8명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패션과 문화를 선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패션문화산업 지원 중기계획인 '패션코리아 2015'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패션과 문화,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패션쇼와 다채로운 전시회로 구성됐다.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진행된 패션쇼는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패션쇼와 전시의 테마를 바탕으로 한 3D 패션 필름 상영관에서는 이색적인 입체 영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패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한 전시회는 패션리와인드관, 패션플레잉관, 패션포워드관 등 3개관에서 10월 2일까지 펼쳐졌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2

1 패션디자이너 박동준과 미술가 김호득이 문자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작품 '리처드 요쿰'이 한국 문화의 역사를 돌아보는 패션리와인드관을 환하게 장식하고 있다.
2 패션디자이너 최복호와 동양화가 홍지윤이 함께 만든 의상. 강렬하고 원기 왕성한 색(色)과 역동적인 시(詩)를 통해 한국의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3 패션리와인드관에 전시된 패션디자이너 이도이와 캘리그래퍼 강병인의 작품 '한글로 태어나는 생활 속의 꿈'.
4 패션디자이너 스티브제이&요니피와 미디어 아티스트 뮌의 협업 작품 'Love of Bat'이 패션포워드관 입구에서 관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5 공간디자이너 김백선과 패션디자이너 임선옥은 바람이 머문 흔적 같기도 하고 풍파에 반질하게 다듬어진 백령도의 돌 같기도 한 의상을 내놓았다.
6 3D 패션 필름 상영관에서는 이색적인 입체 영상을 선보였다.
7 패션과 문화, 미디어아트가 돋보인 패션쇼. 국내 패션디자이너 10명과 그래픽·공간·미디어 아티스트 8명이 협업으로 완성한 작품들이 모두 모였다.

3


5


4


6


7


함께 만들어요! 대한민국세미래 稅美來

NTS 국세청
www.nts.go.kr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 126하세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세법상담에서 연말정산까지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상담시간

월~금 오전 9:00 ~ 오후 6:00
(탈세신고는 365일 24시간 가능)







선진 대한민국의 꿈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주창한 이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의 균형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자율·공정·책임의 대한민국, 선진 일류국가로 향하는 실천방안입니다.



일러스트 · 이우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9월 8일 오전 중소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자율·공정·책임이 함께하는 '공정한 사회'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한 달여 남긴 우리나라는 고속성장과 민주화의 결과로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하지만 절대빈곤에서의 탈출에 급급해 돌아보지 못했던 소외와 불공정, 적의와 불신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않고서는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그동안 지나쳤던 정의의 가치와 공정한 사회제도의 중요성에 눈뜰 때다.

우리 사회에 '정의(正義)'의 열풍이 부는 듯하다. 우리말로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로 풀이되는 정의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定義)한 이후 많은 철학자들이 다양한 윤리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근거로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찾아왔다.

우리 사회의 정의 열풍은 지난 5월 말 국내에 소개된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불붙었다. 이어 미국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미국 듀크대 교수의 〈덕의 상실〉,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정의와 정의의 조건〉 등 '정의' 관련 국내외 책들로까지 확대된 정의 열풍은 지난 8월 15일 이

명박 대통령의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이르러 '공정한 사회'로 자리 잡았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속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새로운 질서와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공정한 사회'에 주목했다.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대한민국호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도록 이끌어온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세계의 경제와 안보를 논하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됐으나 소상공인, 저소득층, 청년구직자 등 서민생활을 목도하며 변화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공정한 사회 위해 '나부터 실천'이 중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갈증은 압축성장과 급속한 민주화를 통해 올해 상반기 세계 7위의 수출국가에 올라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대한민국호의 그림자에서 나온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자살률,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지수, 국론 분열과 사회적 불신은 그동안 성장에 주력하느라 지나쳐온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다.

이러한 그림자를 지우고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방법론이 바로 이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론이다. 이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다. 한마디로 '자율, 공정, 책임이 함께 있는 사회'인 것이다.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승자가 독식하지 않으며 지역과 지역이, 노사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후에도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며 고위층, 공직자, 나부터의 실천이 강조돼왔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돼야 한다."(8월 27일 확대비서관회의)

"공직자부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일 하나하나가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냉철하게 생각해달라."(9월 5일 장차관 워크숍)

이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현대사회에서 공정한 사회의 핵심은 바로 분배이고 분배는 소득, 부, 기회의 분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고 중산층이 붕괴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주요 내용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권 부여
- 대기업의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 2, 3차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경쟁력 제고
- 민간 주도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 대기업 협력사 지원 투자 7퍼센트 세액 공제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에 2011년 8백억원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연구개발, 산업인력 등 핵심역량 강화

동반성장 시스템과 점검체계 구축
-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기업별 동반성장지수 정기적으로 발표
- 대통령 주재 동반성장회의 정기 개최
- 청와대가 추진 상황 매월 점검, 분기별 보고

지난 9월 8일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이렇게 강조한 이 대통령은 9월 13일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 12명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한 뒤,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대기업의 실질적인 '동반성장 파트너'로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도급법 개정 등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상생법안이 마련되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5대 기업은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해 자사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설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는 12월 발족하는 등 민간과 정부의 상생 추진 기구들도 구성된다.

현대사회에서 공정한 사회의 핵심은 '분배'

이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대기업의 자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주문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서로 잘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업문화 속에 우리 사회에도 독일의 강소기업인 '히든 챔피언'과 일본 장수기업의 장점을 접목한 글로벌 중소기업인 '스몰 자이언트'가 대거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든 중소기업이든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자율, 공정, 책임이 함께 있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는 비단 대통령만이 아닌 온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개천에서 용’ 옛말 되지 않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연중돌봄학교·엄마품 멘터링 등 마련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은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에서 시작된다. 정부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출받은 학자금을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제도와 교육 취약지역인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한 연중돌봄학교가 대표적이다.

#1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방지초등학교와 이 학교에서 1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운문면 문명분교에는 바이올린 8대와 플루트 16대가 있다. ‘연중돌봄학교’로 선정된 이들 학교는 지난해 정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악기를 구입했다. 그 덕분에 본교 학생 40명과 분교 학생 11명 모두 바이올린과 플루트를 익힐 수 있게 됐다.

이들 악기를 들여놓았을 때 아이들은 TV에서나 보던 것이라며 마냥 신기해했다. 교사들도 과연 아이들이 악기를 다룰 수 있을지 우려했다. 학교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강사로 초빙해 1~3학년에게는 바이올린을, 4~6학년에겐 플루트를 가르쳤다. 악기 연주에 푹 빠진 아이들을 위해 올 여름방학에는 10일간의 특별 레슨도 실시했다.

지난 9월 17일 문명분교에서는 학생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오케스트라가 협연해 ‘산속 음악회’를 열었다. 김명룡 방지초교 교장은 “산속 음악회는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와 어르신들, 목사님, 스님 등도 참여한 마을 축제였다”며 “아이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연습하면 훗날 바이올리니스트와 플루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실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한동안 방황을 거듭한 김치호(가명) 씨. 하지만 학업의 끈을 놓지 않은 덕에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한 대학에 들어간 그는 교사라는 직업이야말로 자신에게 꼭 맞는 일임을 뒤늦게 깨닫고 사범대학 진학을 열망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선뜻 자신의 꿈을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미 3학기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탓에 공부하면서 쌓여가는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때마침 정부가 마련한 ‘든든학자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걱정을 덜게 됐다.

든든학자금을 빌려 새롭게 사범대학에 진학한 그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때문에 그동안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버느라 학업에 충실하기 힘들었다. 나의 적성에 꼭 맞는 선생님의 꿈을 포기하려고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든든학자금 덕에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고 소중한 꿈도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며 흡족해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장학재단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인 ‘든든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로 붐비고 있다.



동아DB



경북 청도군 방지초교 문명분교는 연중돌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바이올린과 플루트를 구입해 모든 학생에게 악기를 배우게 하고 있다.

교육은 지속성장이 가능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백년대계(百年大計)다. 하지만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와 농촌,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교육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어촌 같은 교육 취약지역의 아이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자녀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아볼 기회도 없이 자신의 숨은 재능을 사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된 '든든학자금'이 좋은 예다. "돈이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담긴 든든학자금은 대출받은 학자금을 취업 후에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특히 이번 2학기 든든학자금 대출금리는 1학기(5.7퍼센트)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내린 5.2퍼센트가 적용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에 따르면 대출신청 첫날인 7월 19일에만 대학원생과 대학생을 합쳐 총 6천4백여 명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중돌봄학교 3백83개교에 2백30억원 지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에는 연중무휴로 아이들을 돌보는 '연중돌봄학교'를 뒀다. 학기 중이나 주말, 방학 등을 가리지 않고 3백65일 교육을 지원하는 연중돌봄학교는 방과후학교가 끝난 뒤에도 야간 보육교실을 운영하는 등 좀 더 친밀한 관리를 표방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12월 연중돌봄학교로 선정된 전국 면지역 소재 3백78개교에 2백98억원을, 올해 4월에는 3백83개교에 2백30억원을 지원했다.

교육안전망 구축과 교육격차 해소에 목적을 둔 '엄마품 멘터링'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과 맞벌이가정 자녀에게 학부모 멘터를 이어주고 방과후 보육, 숙제 지도,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지역을 안배해 총 2천4백명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만 적용됐던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로까지 확대된 것.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수도 늘어나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및 사회 적응을 돕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역량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한이탈 학생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46개 학교를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해 언어, 학습,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문화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초중급 한국어 교재와 초등학교 저학년용 언어 인지 도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든든학자금 대학장학지원과	☎ 02-2100-6278
연중돌봄학교 교육복지정책과	☎ 02-2100-6520
엄마품 멘터링 학부모지원과	☎ 02-2100-6416
장애학생 특수교육 특수교육지원과	☎ 02-2100-6562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교육복지정책과	☎ 02-2100-6524
북한이탈 학생 교육 교육복지정책과	☎ 02-2100-6523



연합

지역할당제와 장애인 쿼터제를 도입한 기업은행을 비롯해 금융권과 공기업, 공직에서 지방대생과 장애인 등 소수자를 위한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소수자·약자 '열린 채용'… 공정 사회 기초

금융권·공기업, 지방대 출신·장애인 쿼터제 등 우대정책 도입

공정한 사회는 균등한 기회가 전제돼야 한다. 교육만큼 중요한 공정한 기회가 바로 취업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취업전선에서 소외됐던 지방대생이나 장애인을 위한 쿼터제가 늘어나고 외국 국적의 인재를 선발하는 등,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올가을 채용시장에서는 지방인재 우대와 '열린 채용'이 눈길을 끈다.

한국은행은 올해 정기 채용부터 지방대학 출신을 신규 채용 인원의 20퍼센트까지 확대해 선발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채용 규모도 확대한다고 지난 8월 16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최종 면접 등 전형 단계마다 지방대학 출신을 20퍼센트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채용할 40명의 신입사원 중 8명을 지방인재 중에서 채용할 예정이다.

9월 19일 원서접수를 끝낸 기업은행도 일반직 부문 모집 인원의 20퍼센트는 지역할당제를 적용해 뽑는다. 서울, 인천 등을 제외한 경기, 충청, 호남(제주 포함), 영남, 강원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입행 후 해당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10월 16일 필기시험을 거쳐 11월 초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국외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 국적 인재도 함께 채용한다.

산업은행은 지역 연고자 우대 전형을 두고 있다. 올해 1백20명 안팎을 채용하는 산업은행은 9월 19일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서류심사를 진행 중이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10월 중순 필기시험, 11월에 1·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문턱 없애기 확대

우리은행은 올해 하반기 정기 공채부터 지방 영업 활성화를 위해 채용 인원의 30퍼센트를 지방 출신자로 뽑는다. 대전·충청·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지역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예정)자를 우대한다. 지난 9월 23일 정기공채 원서 접수를 마친 데 이어 10월 7일 서류전형 합격자, 11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은행도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 소재 영업점에 근무할 인원은 해당지역 대학 출신자로 선발,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텔러직과 텔레마케터를 각각 1백50명

씩 채용했다.

연령과 전공을 제한하지 않는 '열린 채용' 방식도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신입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지원 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만 명시해 연령과 전공을 제한하지 않는 열린 채용 방식으로 전형을 실시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15명 내외를 신규 채용한다고 9월 7일 밝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올가을 경제, 경영, 법학 부문에서 모두 10명 내외를 선발하고 이공계 4명, 국외 MBA(또는 국외 대학 졸업자) 1명 내외를 채용할 계획이다. 학력, 연령, 전공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과 장애인, 지방대학 출신,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대하는 사회형평적 채용을 실시한다.

장애인의 취업문도 넓어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채용 예정 인원 15명 내외 중 10퍼센트가량을 장애인으로 뽑을 계획이며, 기업은행도 사무 지원과 전화상담 분야 계약직 직원으로 장애인 10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장애인 쿼터제를 도입해 신입직원과 계약직, 청년인턴 고용 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3% 달성

소수자 우대는 선천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불리한 여건에 있는 소수자에 대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정부도 공직에서 소수자 우대정책을 도입해 공정한 채용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다. 공직 채용에서 소수자 배려 유형으로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등이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는 2012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의무 고용률 3퍼센트를 달성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채용현황은 2.35퍼센트였다. 2006년 시행되기 시작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는 학과 성적 상위 10퍼센트 이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의 추천을 받아 1년의 견습기간을 거쳐 7급으로 임용한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행정·외무고시 합격자 중 서울을 제외한 지방 소재 대학 및 대학 이하 학교의 졸업자가 20퍼센트에 미달하면 발동된다. 지방학교 출신이면 기존 합격선보다 1점 낮은 합격선의 적용을 받는다.

김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학연, 지연, 혈연이 각종 이권에 개입돼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줄에 기대보려는 잘못된 사회풍조를 낳는다"며 "채용과 승진이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만 사회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G

글·박경아 기자

5급 사무관 채용된 중증장애인 지정훈 씨

"장애 갖고 공무원 된 거 꿈만 같다"


연합

"장애를 갖고도 공무원이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지난 9월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5급 사무관에 채용된 지정훈(31) 씨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5급 공무원에 합격한 것은 2008년 중증장애인 특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지체장애(상지) 3급인 지 씨는 이번 채용시험에서 방송통신(통신기술) 분야 5급 시험에 응시해 오는 12월부터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에서 일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고용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중증장애인 특별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경성대와 부산대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지 씨는 지난봄부터 이번 시험을 준비했다. "합격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유전체 서열 분류기법을 이용한 프로그램 유사도 비교'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도 받았다.

한편 이번 특채 합격자 중 최연소 합격자인 박모(남·27) 씨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이면서도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고, 다른 장애인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자활사업을 펴 '새내기사회복지상'을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다.

최고령 합격자인 남모(남·43·지체장애 1급) 씨는 2001년부터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상담원(비정규직)으로 근무해오면서 올해 세 번째 시험에 응시해 고용노동부 정규 공무원의 꿈을 이뤘다.



동아DB

우리은행의 지방 출신자 채용에는 지방 영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담겨 있다.

기부 바람에 실려오는 훈훈한 情

기부문화 확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늘리는 등 제도 정비

**공정한 사회의 구성원은 주변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나누는 미덕을 갖춰야 한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가진 것을 양보하는 기부와 봉사,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되면 사회는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



굿네이버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면 일반인의 생활 속 기부가 늘어야 한다. 굿네이버스는 굿바이(Good Buy) 운동으로 착한 소비를 이끌어내 지구촌 빈곤 퇴치에 힘쓰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내 기부금 규모는 3배 이상 확대됐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2조9천억원에서 2008년 9조원으로 늘었다.

특히 개인 기부 비중이 커졌다. 아름다운재단이 조사한 1998년 기준 한국인의 1년 평균 기부액은 1인당 5천8백원이었지만 10년 뒤인 2008년 한국의 기부지수(Giving Korea)는 1인당 19만9천원으로 무려 34배가 늘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이 2007년 조사한 국내 기부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기부 참여율인 55퍼센트에 비해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은 16.6퍼센트에 그쳤다. 기부가 특정 시기나 행사에 치우쳐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모금한 3천3백18억원 가운데 개인의 기부현황은 23.2퍼센트 수준으로 기업과 사회·종교단체 등의 모금 비율보다 떨어졌다. 물론 기업과 단체의 기부액이 큰 것은 당연할지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착한 상품 구입으로 일상 속 기부 실천

따라서 기부문화를 이끄는 비정부기구(NGO) 등은 개인이 자연스럽게 기부문화에 흡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일상에서의 기부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학교 내 '마사 커피'에서 커피를 즐겨 마신다. 이곳이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함

께 '5원의 기적 캠페인'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가격에 포함된 5원은 복지관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

이처럼 생활 속 기부는 '착한 소비'와도 연결되고 있다. 착한 소비는 판매금액 일부를 기부하는 이른바 '착한 상품'을 소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세계 노동자들과 직접 거래해 적정한 이윤을 남겨주는 공정무역 운동도 같은 취지다.

2002년부터 기증물품 판매 및 공정무역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아름다운가게도 착한 소비를 이끄는 대표적인 곳이다. 아름다운가게는 기증받은 물품을 싸게 팔아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고 있으며 네팔, 페루 등지에서 커피를 수입해 판매한 결과 지난해 20억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재 수익금으로 저개발국가에 농기구를 보급하고 학교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념일 나눔' 통해 기부 행사 열어

국제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도 '착한 소비를 하자'는 의미의 굿바이(Good Buy) 운동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패션, 식품, 전자기기 등 다양한 기업이 굿바이 운동에 참여해 '굿바이 로고'가 부착된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해 기부한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사면서 기부를 하고 기업은 매출을 올리며 기업 이미지까지 높이는 상부상조의 기부 운동인 셈이다.

요즘에는 특히 이색 기부들이 활기찬 기부문화를 이끌고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올해부터 웨딩드레스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이명순 씨의 재능기부로 기증된 웨딩드레스를 대여하면 대여료 일부가 기부돼 소외계층 부부들의 결혼식 지원에 사용된다.

아름다운재단은 결혼기념 나눔, 돌기념 나눔 등 '기념일 나눔'을 통해 특별한 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 행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2005년 기업 최초로 포인트 기부 전용 사이트 '아름인'을 개설했고 기부전용 카드인 '아름다운카드'도 출시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기부문화도 성장하고 있다. 200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도층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총 35명 회원 가운데 20명이 올해 가입했다.

올해 1월 18번째 회원으로 등록한 천지세무법인 박점식(54) 대표는 "부와 빈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지도층이나 가진 자들이 당연히 나눔의 문화를 일궈야 한다"며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마음과 정까지 나누면 훈훈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기부문화가 성장함에 따라 발 맞춰 함께 나가야 할 활동이 자원봉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사회복지 분야의 등록 자원봉사자는 지난해 기준 3백23만여 명. 그러나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김정연 사무관은 "민간 위주로 확산되는 나눔문화를 정부가 직접 이끌 수는 없지만 대신 관련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 돕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자원봉사와 기부 등 나눔 활동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나눔종합정보망' 사이트를 11월에 열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과 법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아름다운재단 ☎ 02-766-1004 beautifulfund.org
아름다운가게 ☎ 1577-1113 beautifulstore.org
굿네이버스 ☎ 02-6717-4000 goodneighbors.kr
신한카드 포인트 기부전용 사이트 '아름인' ☎ 1544-7000
arumin.shinhancard.com

나눔문화 앞장선 세계적 배우 저우룬파

"세상 떠난 뒤 재산 99% 기부하겠다"


로이터

홍콩 출신의 세계적 배우 저우룬파(周潤發 · 주윤발 · 55)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증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대만에서 발행하는 〈연합보(聯合報)〉와의 인터뷰에서 "내 재산은 내가 번 것이긴 하지만 영원히 내 것이 아니며 죽은 뒤 가져갈 생각도 없다"며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의 99퍼센트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영웅본색〉 〈첩혈쌍웅〉 등으로 1980년대 홍콩 누아르 붐을 이끌었던 저우룬파는 한국 돈으로 1천억원대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재산 기부 의사에 대해 가족 모두 동의했다면서 "지금 먹고살 집이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2008년 전 재산 4천억원을 기부하기로 한 재키 챈(陳港生 · 성룡 · 56) 역시 올해 56번째 생일을 맞으며 중국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1억여 원의 거액을 기부했다.

이들의 훈훈한 기부 활동은 오래전 전 재산을 기부한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지난 6월부터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 · 기부서약)' 캠페인을 벌여 40명의 억만장자가 기부에 동참하도록 이끌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작은 재능 하나면…

돈이나 물질 아닌 '재능을 나누는 일'… 함께하는 실천 '표상'

돈이나 물질로만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작은 재능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나눔문화의 패러다임을 뒤흔든 재능기부의 긍정적 에너지는 대한민국 곳곳에 나눔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워커힐호텔의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셰프들이 경기 여주군 신륵사 부설 예비 사회적기업인 신륵노인복지센터를 찾았다. 바쁜 이들이 휴일까지 반납하며 센터를 찾은 까닭은 이곳의 도시락 사업을 돕기 위해서였다. 평균 경력 10년차가 넘는 셰프들은 매서운 눈빛으로 센터의 문제점을 꼭꼭 짚어냈다.

"주방시설은 청결이 우선입니다. 손님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위생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청결해야 합니다." _이종섭 조리장

"간단한 밑반찬으로 연근전 같은 사찰음식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여주에서 나는 식재료로 만드는 반찬도 필요할 것 같군요." _이종필 조리장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지금, 신륵노인복지센터의 도시락은 저렴한 가격에도 맛있는 반찬을 제공한다고 입소문이 나 회원 수가 3배 이상 늘었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요리 리모델링이라는 따스한 손길을 건네는 8명의 워커힐 셰프는 지난해 9월 SK그룹의 재능기부 봉사단 SK프로보노에 자원하면서 뭉쳤다.

경력 20년차인 송영원(43) 워커힐호텔 조리팀장은 "반평생 음식 만들기에 열정을 쏟았으니 이제 그 비법을 베풀 때가 됐다"며 "소외계층의 먹을거리 문제를 덜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기업의 음식 사업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9일 셰프들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신륵노인복지센터에 이어 서울 용산지역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예비 사회적기업인 막달레나공동체 동고리국수집에서 국수 메뉴 개발에 도움을 주던 차에 아예 도움을 요하는 사회적기업의 조리사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으자는 아이디어를 냈던 것. 이날 15곳의 사회적기업 조리사들은 특급호텔 조리장에서 한식, 일식, 중식 셰프들에게 일급 레시피를 일일이 지도받으며 배울 수 있었다.

한식 메뉴를 담당한 이종섭(36) 조리장은 "'요리'라는 재능으로 더불어 사는 상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고, 이종필(41) 조리장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과 재능 나눔으로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다"며 "메뉴를 개발해 알려드리다 보니 조리 공부도 더 하게 되는 등 나눔을 통해 새로 깨닫는 것이 많아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다.

조영철 기자



9월 29일 워커힐호텔 셰프들은 사회적기업 조리사들을 모아 음식 메뉴 개발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한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메뉴를 시연하고 레시피를 제공했다.

나눔문화 확산의 일등공신 '재능기부'

나눔문화 확산의 일등공신으로 재능기부가 떠오르고 있다. 재능기부는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처럼 연례행사나 단순한 모금 차원의 나눔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소외계층을 위해 쓰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 재능기부가 활발해진 이유는 라틴어 프로보노 퍼블리코(Pro Bono Publico)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를 뜻하는 '프로보노' 운동에 힘입어 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



조선일보

지난 6월 '재능을 나눕시다' 캠페인 홍보대사로 탤런트 이순재, 산악인 엄홍길 씨 등이 위촉됐다. 이들은 재능 나눔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기 때문이다.

그중 유명인의 재능기부는 파급력이 커 재능기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고 있다.

소설가 김영하 씨는 지난 7월 말부터 네이버 블로그 '김영하의 스토리특급(blog.naver.com/story_xpress)'에서 신작을 비롯해 이제까지 발간한 단편소설을 연재하고 있다. 블로그에서 그의 글을 읽은 누리꾼은 해피빈 콩으로 기부할 수 있고 이렇게 모인 해피빈 콩은 개당 1백원으로 현금화해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를 돕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 기부된다.

앤 메리 캠벨 UNHCR 한국 대표는 재능기부로 아이들을 돕는 김 씨에게 지난 8월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에 앞서 5월 노희경 드라마 작가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글을 연재하면서 석 달간 약 5백20만원의 기부금을 모아 화제가 됐다. '광고 천재'라 불리는 이제석(28) 씨는 노숙인을 위한 잡지 〈빅이슈〉의 한국판 1, 2호 표지디자인을 재능기부로 만들었다.

지난 9월 초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트위터(@jsjeong3)를 통해 시골 마을 아이들을 위해 과학자의 작은 도시 강연 기부를 제안했다. 정 교수의 글에 강연 때 도움을 주겠다는 답변들이 쏟아졌고, 이들 중 80여 명의 재능기부자들이 강연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앞으로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재능기부의 날'로 정해 3백65일 중 단 하루만큼은 나의 재능으로 남을 위해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반인의 재능기부를 돕는 '재능을 나눕시다' 캠페인도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1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선일보〉가 '봉사와 나눔 운동본부'를 구성해 재능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

현재까지의 재능기부 신청은 4만1천여 건. 캠페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특기와 거주지 등을 신청하면 본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단체와 연결해준다.

일반인 재능기부 돕는 '재능을 나눕시다' 캠페인 호응

지난 1월 우연히 재능기부 기사를 보면서 재능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된 용인외국어고 2학년 김홍일(18) 군은 "재능 나눔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 군은 현재 한 달에 두 번 평택시에 있는 소외계층 초등학생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친다.

그는 "바이올린을 켜며 환히 웃는 아이들을 보면 메마른 삶에 한 줄기 희망이 된다"며 "한때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이젠 가진 것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대학생이 돼서도 나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에서도 기업 역량에 맞는 재능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카드는 서울역 앞 버스정류장, 제주 올레길 이정표를 디자인해 디자인을 통한 재능기부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LG생명과학은 LG복지재단과 함께 1996년부터 올해까지 총 5백여 명의 저소득 저신장 아이들에게 46억원 상당의 왜소증 치료제를 지원했다. G

글·김민지 기자

'재능을 나눕시다' 홈페이지 volunteerkorea.or.kr

제1회 대한민국 나눔문화 대축제

나눔의 씨앗 뿌려 행복 열매 키운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나눔의 장(場)이 열렸다. 국내 최대 규모로 '제1회 대한민국 나눔문화 대축제'가 마련된 것이다. 나눔의 힘을 믿는 따스한 인연들로 가득 찬 나눔 축제 현장을 다녀왔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옆 평화의 공원은 여느 주말보다 훨씬 많은 인파로 술렁였다. 화창한 가을 정취를 만끽하러 온 시민들로 북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발걸음은 또렷이 한 장소로 향했다. 전날 개막한 '제1회 대한민국 나눔문화 대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성숙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나눔'을 주제로 한 행사 중 그 규모가 가장 컸다. 모금 및 자원봉사활동을 주도하는 비정부기구(NGO)와 사회복지단체,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는 기업까지 전국 곳곳에 나눔의 씨앗을 뿌리는 주체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다. 행사는 '희망존(Zone)' '나눔존' '사랑존' 등 각 주제에 맞게 마련된 1백30여 개의 상설 전시 부스를 축으로 갖가지 부대행사들이 마련돼 나눔과 기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자신의 것 나눔으로써 많은 걸 얻어가는 행사 되길"

아치형으로 된 축제의 문으로 입장하자마자 저마다의 사연으로 나눔의 소중함을 알리는 전시 부스들이 눈에 띄었다. 그중 가장 긴 행렬을 자랑했던 곳은 희망존에 위치한 월드쉐어의 진흙쿠키 체험관. 지난해 대지진을 겪은 아이티의 아이들이 먹는다고 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진흙쿠키를 직접 만들어보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서울 증산초등학교 4학년 유진(11) 양은 말린 찰흙덩어리 같은 것을 굶주림에 못 이긴 아이들이 돈을 주고 사먹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대요?"라며 울먹였다. 유 양은 진흙과 마가린, 소금을 넣은 쿠키를 만들면서 쿠키 위에 '힘내, 친구들아'라는 글귀를 새겨넣었다.

◀나눔문화 대축제에는 1백30여 개의 상설 전시 부스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나눔문화를 알렸다. 아이티 아이들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었던 월드쉐어의 진흙쿠키 체험관.
▼이날 행사장엔 재능기부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스마트폰 기부 애플리케이션을 재능기부로 만든 아이앤에스랩 김윤학 사장(사진 왼쪽)과 직원들.





축제 행사장 곳곳에는 나눔과 기부에 대한 메시지들이 남겨졌다. 위스타트운동본부 부스 한쪽 벽면에 붙어 있는 글귀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1만여 명. 가족 단위 참가자가 특히 많았다. 폐휴지로 기부 저금통을 만드는 체험 행사가 진행되던 위스타트운동본부 부스에서 만난 이연지(34) 씨는 "아이들이 나눔 체험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눔정신을 배울 수 있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워지는 햇볕에도 시종일관 웃으며 분위기를 띄웠던 5백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도 이채로웠다.

빈곤지역 신생아를 살리기 위해 모자 뜨기 캠페인을 벌이는 세이브더칠드런 부스 안에서는 이윤자(44) 씨와 두 딸이 사람들에게 모자 만드는 법을 부지런히 알려주고 있었다.

이 씨는 "학대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 2년 전부터 혼자 모자 뜨기를 했는데 이젠 초등학생과 대학생인 두 딸은 물론 직장 동료 4, 5명이 함께 한다"며 "먼저 용기를 내어 실천하면 주변 사람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나눔의 힘은 강하다"고 전했다.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 봉사하는 이들도 있었다. 신한미소금융재단을 통해 3천만원을 대출받아 경기 김포시에 커피숍을 창업한 최인호(32)·김윤이(33) 씨 부부였다. 이들은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시원하고 맛있는 커피를 전했다. 최 씨는 "받은 나눔을 돌려줄 때 그 기쁨이 더 큰 것 같다"며 "앞으로도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부스에서 소개한 스마트폰 기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은 미래형 기부로 많은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10월 중 무료로 배포될 이 앱은 평소 나눔 활동에 관심이 많은 아이앤에스랩 김윤학(38) 사장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기부 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까지 한 김 사장은 "조만간 공식 배포돼 많은 이들이 기부활동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사랑의 열매 부스, 스마트폰 활용한 미래형 기부로 주목

이날 점심엔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졌다.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기부문화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 감동 사연 기부자 등 2백20여 명이 '나눔이 있는 행복한 점심' 식사 행사를 가진 것이다.

이 행사에 참여한 신선설농탕 오청(45) 대표는 "다양한 기부자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나눔이 퍼뜨리는 행복 바이러스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나눔에 뜻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즐기면 행복해질 수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의 17번째 회원이다.

한편 이 대통령 내외는 점심식사 후 이들과 함께 축제 현장으로 이동해 홀몸노인들에게 전달할 송편을 빚는 등 다채로운 나눔 행사를 체험했다. 석양이 질 무렵에도 축제 열기는 이어졌다. 오후 7시부터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펼친 '대한민국 나눔 콘서트'는 나눔문화 대축제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눈코 뜰 새 없지만 시간 쪼개 나눔봉사"

다문화가족 사진 찍어주는 한용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

사회공헌과 나눔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문화가족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주는 한용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삼성문화재단은 물론 삼성그룹 전체 사회공헌을 총괄하던 CEO 자리에서 물러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나눔 활동으로 인생 2막을 연 그를 만났다.



조영철 기자

지난해 사재 10억원을 기부해 인클로버재단을 만든 한용외 이사장은 다문화가족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974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특유의 뚝심과 성실성으로 승승장구한 인물. 삼성전자 사장, 삼성문화재단 대표, 삼성사회봉사단장 등을 지내며 기업의 사회공헌문화 확산에 앞장선 기업인. 이 화려한 이력의 주인공은 한용외(63) 인클로버재단 이사장이다. 인클로버재단은 한 이사장이 사재 10억원을 기부해 만든 다문화지원재단이다.

지난 7월 그는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에 임명돼 삼성문화재단에서 쌓은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공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무보수에 비상근직이니 자원봉사나 다름없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노동으로 하는 자원봉사보다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더 훌륭하고 멋진 자원봉사"란다. 사회복지 활동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도 집필 중이다.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의 연속이다.

강철 같은 체력과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버티기 힘든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그는 틈틈이 나눔 활동을 즐긴다. 4년 전 시작한 취미를 살려 다문화가족의 사진을 찍어주는 일이다. 몇 시간 동안 서른 가족의 사진을 찍다 보면 저녁식사도 거르고 부인이 싸준 삶은 감자로 허기를 때우기도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티셔츠가 흠뻑 젖도록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과 함께 생애 첫 가족사진을 들고 흐뭇해하는 다문화가족들의 표정에서 가슴 벅찬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의 사진을 찍어주는 나눔 활동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습니까.

4년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실시한 'PHOTO & CULTURE' 프로그램에 참가해 배운 사진이 취미가 되어 많이 찍으러 다녔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제가 설립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과 좀 더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제 취미와 다문화가족들이 좋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셈이죠.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약 1백 가족의 사진을 찍고 액자도 만들어줬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요.

일반적으로 가족사진을 찍을 때는 다문화가족들이 모여 있는 현장으로 가서 인물 화장, 촬영, 포토샵, 인화, 액자작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한번은 경기 양평군으로 촬영하러 갔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완전히 끝내려고 새벽 3시 30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어찌나 고맙던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또 결혼 16년 만에 처음 가족사진을 찍었다는 가족, 이혼한 부부가 함께했던 날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은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재를 털어 인클로버재단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성에서 35년간 근무하며 삼성과 사회의 도움으로 현재의 내가 있게 됐고, 삼성의 사회공헌사업을 11년 동안 전담하면서 사회공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시점에서 작은 힘이나마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봉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회복지에는 많은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다문화가족 문제는 미래 사회의 화두이며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2019년이 되면 농촌의 19세 이하 주민 중 다문화 청소년 수가 49퍼센트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로 보아 우리나라는 머잖아 다문화사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문화사회가 되면 피부색이 다른 인종과의 공존, 여러 민족의 다양한 문화 혼재, 다원화되고 국제화된 교육의 필요성, 가치관 차이에 의한 갈등 심화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우리의 건강한 국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창의력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과 편견으로 다문화가정을 소외시킨다면 그들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반목과 갈등으로 엄청난 사회비용을 우리들 스스로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클로버재단

한용외 이사장은 바쁜 틈틈이 다문화가족들을 만나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정부나 기업들이 현재 운영 중인 다문화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예산을 편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동화시키는 수준을 넘어 그들의 고유한 문화, 언어, 풍습 같은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의 저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따르면 이민 온 사람들은 자녀가 교육, 경력, 직업상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면서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민 온 사람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베트남, 몽골, 중국 등 다문화 국가별로 전통문화 행사와 공연을 유치하고, 국가별 주요 도서를 정기적으로 수입해 그들 나라의 현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문화 국가와 관련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등 그들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도 수립돼야 합니다.

사회공헌과 나눔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려면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지식인, 공직자, 특히 다문화 자녀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사회적응 지원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과 함께 어울리면서 쌍방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인클로버재단 www.inclover.or.kr

상생 파트너로 동반성장 이끈다

상생협약 제도 이후 78개 대기업에서 2조9백억원 자금 지원

늘 승자는 대기업, 패자는 중소기업이었다. 대기업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구조에서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추락하는 건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산업이 점점 융복합화되는 현 상황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지속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부활이 시급하다. 대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동반성장'이 그 해답이다.

#1 토공, 수중, 철근콘크리트 분야 등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다수 보유한 건설업체 성보씨엔이는 중소기업임에도 이례적으로 알제리 사하라사막 초입 부그졸 지역의 신도시 프로젝트 중 도시 택지개발 및 도심 도로건설을 맡아 공사 중이다. 이 신도시 프로젝트는 대우건설이 맡고 있다. 대기업인 대우건설이 수년간 최우수 협력업체로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성보씨엔이에 해외사업 진출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이처럼 대우건설은 지난해 6월 이후 2천8백76억원을 들여 51개 협력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왔다.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의 해외사업에 참여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협력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해외 현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점차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게 됐다.

또한 협력업체들에게 연구개발비 14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자재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한 1개 협력사에는 약 15억원 상당의 자재를 직접 구매해 공급한 대우건설은 중소기업 경영자문 프로그램도 운영해 협력업체 스스로 체질개선을 꾀하도록 방법을 전수하고 있다. 대우건설 협업시스템(DW-eCoS) 홈페이지도 개설해 '열린' 협력회사 관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동반성장 노력은 기존 협력업체가 아닌 법인에도 해당된다.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제안제도'를 운영해 동반성장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2 계룡건설도 협력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 초기 투입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현금결제 비율도 44퍼센트에서 71.6퍼센트로 확대했다. 또한 건축 골조 및 습식공사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의 하자 이행보증도 면제했다.

9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중 우수 등급을 받은 대우건설과 계룡건설의 협약 이행 실적이다.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이 협약은 이른바 정부와 대·중소기업 간의 삼각공조(Triangle Cooperation Program) 상생 프로그램이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정거래 및 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해 우수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상생협력 성과물로 공정위로부터 우수 등급

두산그룹


"동반성장, 상생협력이 지속발전하는 길이죠." 두산 발전기 공장에서 두산 직원과 협력업체인 은성기공 직원이 상생을 다짐하고 있다.



(90점 이상)을 받은 대우건설과 계룡건설은 1년간 직권 조사 및 서면 조사를 면제받고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지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기업의 지원효과는 총 3조6천6백1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78개 대기업에서 2조9백58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1조1천5백9억원의 납품단가가 인상됐다. 또한 자재 구매 대행과 설비 지원 등에도 4천1백74억원이 투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과를 떠나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상생협약 이행 수준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임은규 하도급총괄과장은 "양호 이상 등급에 이르지 못한 29개 대기업의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의 도입, 현금결제 비율 상향, 납품단가 인상, 결제기간 단축 등의 개선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최고의 화두다.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시대적 대세다."(박용현 두산그룹 회장)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지만 멀리 가려면 우리가 협력업체와 함께 가야 한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미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3차 상생협약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삼성전자는 지난 8월16일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 방안을 통해 원자재 변동을 부품 단가에 반영하는 '사급제도', 1조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펀드' 조성, 2·3차 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지원책, 사이버 신문고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협력업체들이 곤경에 처할 때는 언제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방침이다. 실제 추석연휴 전인 9월 17일에는 당초 9월 27일 지급 예정이던 협력업체 납품 대금 5천6백억원을 열흘 앞당겨 지급해 협력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숨통을 틔워주기도 했다.

계열사별로 공정위의 상생협약을 실천해온 LG그룹도 지난 8월 '상생협력 5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전사적으로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상생경영'에 주력할 것을 알렸다. 과제에 따라 연구개발(R&D) 및 장비 국산화사업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중소기업의 자생력 증대를 위해 사업, 금융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온라인 소통 전담 창구인 'LG회사 상생고'도 10월 중 문을 연다.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아이폰 생태계'에 비유해 설명했다.

"다양한 콘텐츠 공급자와 유저가 수평적인 관계로 존재하는 '아이폰' 생태계가 이 사회에 가져다준 충격을 대기업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그려온 기존 산업 생태계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미사여구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G

글·유재영 기자



동아DB

현대·기아자동차가 9월 1일 1차 협력사에 지원된 내용을 2차 협력사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식을 가졌다.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강화

조달청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나섰다. 조달청은 9월 1일 경제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중소·지역기업의 조달 참여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 등 우대 ▲적정한 조달가격 보장 ▲원자재 수급 지원 등의 4대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중소기업 조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억원 이상 제품을 구매할 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18일부터 '중소기업 컨소시엄과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 제품을 개발해놓고도 납품 실적이 없어 판매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996년부터 운영해온 '정부 조달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앞으로는 기술, 성능, 디자인이 혁신된 제품 위주로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등 내실 위주의 운영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담보능력이 없어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퍼센트를 대출받고 이후 납품 대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론 제도도 이미 해당 은행을 14개까지 확대해 실시 중이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과 품질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개조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경북 울진군 원남면을 찾아 주민들의 주택을 보수하는 봉사를 벌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캠코 한마음 봉사단'을 통해 나눔 경영을 펼치고 있다. 9월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노인복지 서비스 시설인 '역삼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생필품을 기증했다.

공기업 '나눔의 미덕' 팔 걷었다

댐 주변에 효나눔센터 · 노후주택 보수 등 업무 특성 살려

나눔 바이러스 전파에는 공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거창한 구호를 외치고 허울 좋은 나눔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다. 각 분야의 공기업마다 고유의 업무 특성을 살려 실천 가능한 작은 것,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에서부터 나눔의 미덕을 발휘하고 있다.

#1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회공헌 모토다. 경제적으로 낭떠러지에 몰린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극빈층을 숱하게 접하는 자산관리공사는 이들의 안전망이 되는 나눔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 실패로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김대웅(가명 · 44) 씨는 지난해 말 뜻밖의 지원을 받았다. 크론씨병(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에 걸린 초등학생 아들의 의료비를 자산관리공사가 선뜻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 매일 고통에 시달리는 아들을 보면서도 돈벌이가 쉽지 않아 속만 태우던 김 씨에겐 눈물겨운 '손짓'이었다. 자산관리공사는 김 씨처럼 루게릭병, 크론씨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고객 자녀 1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다.

올 추석엔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고객 2백50가구에 각 30만원씩 차례상 비용을 지급했고, 지난 6월엔 고객 자녀 3백명에게 '희망장학금'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 돈 때문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힘든 고객들의 마음을 붙들어놓는 것이 자산관리공사가 느끼는 사회적 책임이다.

#2 대청댐이 들어선 충북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에 사는 손수덕(가명 · 80) 할머니는 올해 추석이 외롭지 않았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외아들도 사고로 세상을 떠나보낸 손 할머니는 수십 년간 작고 허름한 집에서 명절을 홀로 보내야만 했다. 그런 손 할머니에게 유일한 소망은 명절날 밥상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함께 밥 한 숟갈 뜨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을 몇십 년째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랬던 손 할머니가 이번 추석 때 갑작스레 소원을 이뤘다. 그것도 집이 아닌 시설 좋은 복지센터에서 또래 할머니들과 풍성한 식사를 즐겼다. 난생처음 따뜻하게 목욕도 했다.

손 할머니는 "그 전엔 언제 땅에 묻힐까 하는 생각만 했는데, 여기 있어보니 20~30년 더 살고 싶다"며 활짝 웃었다.

손 할머니가 행복을 느낀 곳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9월 16일 개관한 대청댐 '孝나눔복지센터'다. 19억원을 들여 완공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복지센터엔 건강증진실, 실버카페, 식당, 문화교실 등 다양한 노인 복지시설이 갖춰져 있다. 충청지역에서는 충주댐과 보령댐에 이은 3호점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복지센터 사업을 추진한 것은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느낀 결과다. 현재까지 전국 8개의 효나눔복지센터가 설립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염경택 수자원사업본부장은 "댐 주변 지역은 노인인구 비중이 높지만 노인복지 분야 전반은 도시지역보다 열악한 편"이라며 "쾌적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노인 여가 및 문화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주부와 자녀 70여 명을 초청해 대전 중구 무수동 무수천하마을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 직원의 96퍼센트가 사내 85개 봉사 동아리에 가입해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다른 공기업들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6년 발족한 '한국농어촌공사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가구 등을 방문해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7년 '다솜둥지복지재단'을 출범시켜 농어촌 주민들의 노후주택 개조사업을 벌이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백88가구의 집을 수리했으며, 올해는 1백45가구의 노후주택을 보수할 계획이다.

사내에선 지난해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쓰면서 생긴 포인트 8천6백만원으로 쌀을 구입해 장애인 가정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연의 업무답게 자사가 공급한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나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사회봉사단, 농어촌 노후주택 개조

마을형 사회적기업은 임대단지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재화 등을 생산해 제공하는 회사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재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우선 올해 공공임대단지 3곳(대구, 시흥, 청주)에 5억원을 들여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세울 예정이다. 청주엔 로컬푸드 전처리 사업장 및 아동·청소년 진로교육센터가 들어서고, 대구엔 어린이 돌봄문화 사업장과 도시락, 밑반찬 사업장 등이 조성된다.

실버사원 제도의 운영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4월부터 주 5일, 하루 4시간씩 임대아파트 시설 관리와 입주민 복지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하고 있는 것. 지난 3월 1차로 60세 이상 노인 2천명을 채용했다. 이들이 배치된 곳도 실버사원이 살고 있는 임대단지나 인근 단지로 정해 출퇴근 부담을 최소화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활동 성과를 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CS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헌혈 등 항목에 따라 배점이 주어지고, 봉사활동은 시간당 점수가 추가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또 자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농수산물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본사와 지사 11곳에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도 공적 기구의 특성을 살려 연금 낼 돈이 없는 저소득층의 연금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백19명의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다름 아닌 공단 직원들의 후원금에서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있다. 1, 2년간 벤처조합을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4백여 기업에 2천6백여 억원을 투자했다.

그동안 국민에게 다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인식돼온 다수의 공기업들. 이젠 그들 먼저 제 살을 깎고 쓸 돈을 아끼며 밑바닥에서부터 상생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G

글·유재영 기자

'따뜻한 기업' 353곳 일자리·나눔·보람 실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기여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나눔, 보람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따뜻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전국 3백53개의 사회적기업들이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6천여 명을 고용하고 2만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가사,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문가영(20·서울대 인문계열 1년) 씨는 '공신(工神)'이다. 공신은 예비 사회적기업인 '공부의 신'에서 취약계층 학습도우미 활동을 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사교육은커녕 동기부여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섬마을(전남 신안군)에서 자란 문 씨가 서울대에 합격하기까지는 선배 공신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중3 때부터 공신 선배들이 사이트에 올려준 공부 방법 칼럼을 읽고, 동기부여 강의를 들었어요. 그들에게서 혜택을 입은 만큼 저도 돌려주고 싶어 대학 입학 전에 공신으로 등록했습니다."

문 씨는 매주 1회 취약계층이 많은 중고등학교의 방과후 교실이나 청소년 자활센터를 찾아가 학습 멘터링을 한다. 현재 공신으로 활동 중인 대학생은 50여 명. 공부의 신을 보완하기 위해 공신닷컴은 공신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지역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공부의 신과 공신닷컴은 〈공부의 신〉 저자이자 TV 드라마 〈공부의 신〉에 나오는 학습법을 알려줘 유명세를 탄 강성태(26) 대표가 서울대 재학시절 창업했다.

"단순히 학습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외된 아이들을 친형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삶에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면에서 우리는 공신을 '친형 멘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교육 불평등을 개선해 사회적 기회균등에 기여하겠다는 공신의 비전을 지켜봐주십시오."

#2 "올해만 2만~2만5천 대의 중고 컴퓨터를 새것처럼 수리해서 내보냅니다. 요즘은 뜻있는 기업이나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자선기관에서도 중고 컴퓨터를 무료로 보내주니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한국컴퓨터재생센터 공장에서 구자덕(44) 대표가 포장 중인 컴퓨터를 보여준다.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고 먼지를 털고, 기증받은 새 윈도 프로그램을 장착한 데스크톱 컴퓨터는 마치 새것 같다.

재생 컴퓨터들은 남양주시의 '사랑의 그린PC' 캠페인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복지단체, 시민사회단체에 기증되거나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저렴하게 판매된다. 고용노동부는 2008년 이 회사를 자원 순환 및 IT(정보기술) 나눔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 재생 컴퓨터 판매로 올 상반기에 올린 매출만 14억여 원. 사회에 기여하고 영리도 추구하는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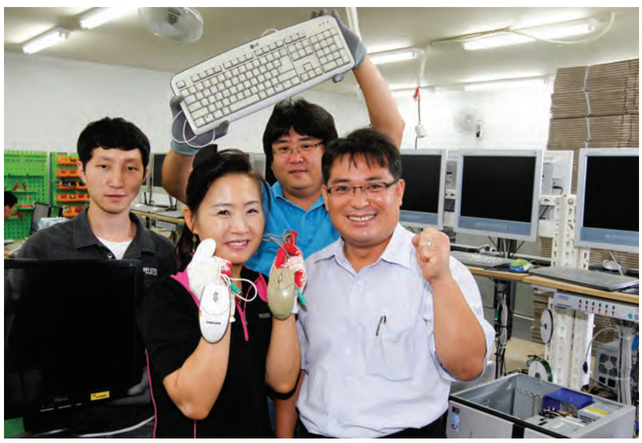
이 회사의 부품 점검, 세척, 조립, 포장 등 각 재생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사원은 29명. 이들 중 절반을 넘는 15명이 저소득층,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다. '남양주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대표를 겸하고 있는 구 대표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착한 경제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8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사회적기업 지원팀'을 신설했다. 구 대표는 "분산돼 있던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한 번에 신속하게 처리해주니 훨씬 편리해졌다"고 환영했다.

◀ '공부의 신'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 한국컴퓨터재생센터(대표 구자덕·맨 오른쪽)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

공부의 신





조영철 기자



동아DB

지난 7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한마당' 장터를 찾은 시민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어르신들이 만든 보자기, 찻잔받침, 쿠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나눔, 보람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에 알려주는 따뜻한 기업입니다.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 사회적기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황선홍 감독(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한 말이다.

'사회적기업은 따뜻한 기업'이라는 그의 말은 아직도 사회적기업이 뭔지 낯설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답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조직)이다.

여기서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 30퍼센트 이상에게 간병,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 자원순환 등 기타형으로 나뉜다.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이 같은 사회적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것 외에도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일 것 ▲이윤이 발생하면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할 것 ▲유급 근로자를 고용할 것 등 꽤 까다롭다.

지난 8월 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전국의 사회적기업은 3백53개. 이 가운데 일자리 제공형이 1백78개(50.4퍼센트)로 가장 많고, 혼합형 85개(24.1퍼센트), 지역사회 공헌형 50개(14.1퍼센트), 사회서비스 제공형 40개(11.3퍼센트)의 순이다.

이들 사회적기업은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마성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적기업은 현재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6천여 명을 포함해 1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만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가사,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따뜻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12년까지 재활용, 청소, 환경교육, 녹색구매 등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을 3백 개 육성해 1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장애인·노약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6천여 명 고용

정부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 외에도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최고 월 85만9천원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도 일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 컨설팅 ▲시설·운영비 대출 ▲세제 지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및 교육 등 전방위 지원이 따른다. G

글 · 최은숙 기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go.kr

규제개혁으로 시장경제 활력 되찾아

신용카드 배송업무 민간개방 등 11개 업종 진입장벽 개선

자본력은 약해도 세계적인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건강한 성장과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 이천 공장은 제품 성능 향상의 걸림돌이던 구리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가 올해 개선돼 한층 미세한 40나노급 D램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동아DB

반도체업계의 기술력은 '나노공정'으로 불리는 회로 미세화의 기술력으로 대표된다. 이 때문에 업체마다 회로를 더 미세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3년 전 2010년 세계 반도체업계 3위를 목표(현재 업계 7위)로 반도체 신기술라인을 증설하려 했지만 당시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및 구리에 의한 상수원 오염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 회사가 입지한 경기 이천시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구리 등 24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었다.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려면 전도율이 높은 구리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과거에는 회로 배선 물질로 알루미늄을 사용했으나 회로가 점점 미세해지면서 알루미늄의 저항이 커져 전도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신기술라인 증설은 구리 배출을 막는 무방류시설을 설치해야만 가능했다. 무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8백억원의 투자비와 매년 91억원의 운영비가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고급인력의 충원이 가능하고 부지,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8천7백억원이 더 들었다.

하이닉스반도체, 구리 배출 규제완화로 40나노급 D램 생산

이 같은 막대한 비용 투자에 큰 부담을 느낀 하이닉스반도체는 결국 뜻을 접었지만 올 들어 구리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가 개선돼 제품의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구리 등 3종 물질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무방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증설이나 입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하이닉스반도체 재경실 홍보팀 김재순 대리는 "50나노급 D램 제품까지는 알루미늄을 사용하지만 40나노급 제품부터는 전도율이 높은 구리를 써야 한다. 그런데 구리 배출 관련 규제가 완화돼 무리 없이 40나노급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

다. 규제완화 덕에 생산라인에서 40나노급 제품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돼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향상, 회사의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의 냉장기계 제조업체인 세대산전도 규제개혁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 이홍근 사장은 2005년 공장을 확장하려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장 용지가 설비 증축이 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농지)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 그는 규제를 풀기 위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오가다 용도변경이 행정착오였다는 사실을 2008년에 밝혀냈다. 고양시는 이를 원상 복구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농지로 남겼다.

그는 지난해 3월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찾아 고충을 털어놓았다. 4년을 끌었던 이 문제는 같은 해 7월 국경위가 "불가피한 경우 농지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바로 해결됐다. 현장 공무원들의 협조로 허가는 일주일 만에 났다.

이 사장은 "대부분의 기업인이 농지 관련 규제로 골치를 앓는다. 현장 공무원들이 움직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한 우리 회사의 사례가 많은 기업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모든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 규제가 적용돼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이 같은 규제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폭 개선됐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48개월→6개월 이내 단축

그 중심축인 국경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며, 경제·사회적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우선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게도 개방하는 등 11개 업종의 진입장벽을 개선했으며 35개 업종의 규제개혁은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창업과 투자도 활발해졌다. 아이디어만으로 간편히 창업할 수 있는 재택 창업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에서 온라인 창업이 가능해졌다. 창업 절차도 10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해 소요

동아DB



경북도청의 규제 담당 공무원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공장 규모를 늘린 경기 고양시 세대산전을 방문해 현장 답사를 하고 있다.

기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세계은행의 창업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지난해 1백26위에서 올해 53위로 껑충 뛰었다.

종전에는 48개월이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도 6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산업용지 공급가격 인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의 종전 입지규제를 총량·배출규제로 전환하고,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과 대형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도권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기차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전통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 0.4퍼센트 포인트 인하, 중소기업 가업승계 시 상속 공제율 2배 확대, 외국인 근로자의 최장 5년 고용허가 등이 그것이다.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신속협상(Fast Track)' 프로그램을 도입해 올해 5월 말까지 27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만기를 연장해주는 '보증운영 비상조치'도 실시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기업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가 최근 3년간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그동안 기업인과 근로현장의 고충을 살피고 소소한 문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 미래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진입장벽 제거 등을 통해 어느 분야에서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

글·김지영 기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02-2287-6285 www.pcnc.go.kr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 02-6050-3366 regulation.korcham.net

일자리·금융 지원으로 다시 일어선다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사회안전망은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존과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정부는 자립하려는 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금융 지원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

#1 "난생처음 도배를 해보니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성남시 시니어직업훈련센터에서 숙련된 도배 강사에게 재단부터 풀 농도, 줄을 맞춰 바르는 법까지 꼼꼼하게 지도받고 현장실습까지 한 덕분에 고가의 실크벽지도 능숙하게 도배할 수 있게 됐어요."

지난해 경기 평택시에 '모양새'라는 지업사를 창업한 방지은(46·사진) 대표는 시니어직업훈련센터가 인생 새 출발의 든든한 디딤돌이 됐다고 말한다. 대기업에서 12년간 근무하다 건강이 나빠져 퇴직한 그에게 재출발은 첫걸음마를 뗄 때처럼 뒤뚱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양팔을 든든하게 잡아준 건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성남시 시니어직업훈련센터'.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도배 직업훈련을 거쳐 도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출장 도배팀을 꾸려 송탄, 천안 등지까지 다니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2 김모(54) 씨는 지난해 가을 동네에 반찬가게를 차렸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남편이 벌어오는 부정기적인 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근처 전통시장에 연 반찬가게는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50만원. 개업하자마자 음식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났지만, 가게 내부 시설이 문제였다.

"반찬가게는 위생이 첫째인데, 중고 시장에서 구입한 진열장이 낡아서 반찬이 깔끔해 보이지 않았어요."

김 씨는 올해 초 전통시장에 미소금융을 홍보하러 온 지점 직원의 권유로 시설자금 5백만원을 대출받았다. 새 유리 진열장을 3백80만원에 맞추고, 식품 재료를 1백20만원어치 구입해 새 반찬들을 선보이자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고 고정으로 배달해달라는 가정 주문 건수도 더 늘었다.

정부의 고용 및 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자립에 성공한 서민들의 사례다. 이 같은 사회안전망은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이 예기치 않은 실업, 질병, 노령 등 어려움에 처해도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정부는 '고용창출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탈빈곤 복지정책의 전제로 삼고 있다. 국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을 복지예산에 시혜적으로 쏟아붓기보다는 서민들이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해 지난해 25만여 명, 올해는 상반기까지 10만여 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울타리를 만들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희망근로 이후의 프로젝트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올 연말까지 5만명, 내년에는 4만명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종류는 지역의 집수리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마을특화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주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50세 이상 미취업자 위한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마련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취업 요령부터 일자리 알선, 취업성공수당 지급까지 취업의 원스톱 도우미로 자리 잡은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4천2백63명이 취업 또는 창업을 했다. 이 프로그램의 수료자 6천7백54명 중 63.1퍼센트가 생계수단을 찾은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대졸 청년실업자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서울의 고용지원센터 두 곳에 'Job-Young Plaza'를 설치해 취업 상담 및 알선에 나섰다. 이곳에서 약 두 달간 3천3백25명이 취업 상담을 받았으며 그중 3백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취업지원책도 추진 중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무훈련, 취업능력 향상, 현장연수를 패키지로 제공해 고령자들에게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환영받고 있다.

2007~2009년 고령자 뉴스타트 사업의 수혜자는 1천7백79명. 취업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 지난해 수료자 중 절반이 넘는 53.4퍼센트가 일자리를 찾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영일 직업능력국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면서 은퇴자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대출은 자립하려는 의지가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 전용 대출상품들이다. 미소금융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창업 희망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 햇살론은 창업자금, 사업운영자금, 생계자금 용도로 각광받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제공

희망홀씨대출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긴급 민생안정 자금이다. 이들 서민 전용 대출상품은 주로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제도권 대출이 막힌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일자리와 금융 지원의 안전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사각지대는 소득 지원제도와 복지 서비스로 보완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성실히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소득 지원 제도다. 무주택 부부의 총 연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저소득층인 경우 연간 최대 1백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올해는 67만5천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9월 말까지 총 5천2백여 억원을 지급받았다.



조영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Job-Young Plaza'를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와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각각 개설했다. 사진은 서울 장교동 '잡-영 플라자'에서 취업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는 장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1백20여 가지 복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해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복지 혜택의 누락이나 중복 없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돌보게 했다. 고용 지원과 복지서비스 정책은 사회통합을 강화한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근로빈곤층 지원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출의 확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확대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서민금융 상품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
대출 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창업 희망자, 운영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 저신용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소득, 저신용자
대출 금리	연 4.5%	연 10~13%	연 7~13%
대출 성격	서민 사업·창업 지원	서민 고금리 부담 감소	서민 생계 지원
대출 기관	미소금융재단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시중은행
재원	기부금 및 휴면예금	서민금융사 출연금, 정부 재정	시중은행 자체 자금
용도	사업·창업자금	사업·창업·생계자금	생계자금

취약계층 자활 돕는 주요 지원책

고용 지원	금융 · 창업 지원	소득지원 및 복지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미소금융(미소금융재단)	근로장려금(국세청)
Job-Young Plaza(서울고용지원센터)	햇살론(저축은행, 농협 등)	취업장려수당(고용노동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	희망홀씨(시중은행)	노인장기요양보험(보건복지부)
고령자 뉴스타트(한국산업인력공단)	희망드림 창업지원(근로복지공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보건복지부)

“2011년 예산은 서민희망 예산”

309조6천억원 편성… 영유아 보육·장애인·빈곤층 등 8대 핵심 과제 집중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도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과 연결된 8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일러스트 · 문지혜

서민 희망과 미래 대비에 중점을 둔 2011년 나라 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5.7퍼센트 증가한 3백9조6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복지(보건, 복지, 노동)예산이 86조3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올해 복지예산 81조2천억원보다 5조1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 고령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생활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애 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생애 단계별로는 ▲영·유아 보육 ▲아동 안전 ▲중고생 및 대학생 교육 ▲청장년 및 노인의 주거·의료를 핵심 복지 서비스로 선정했으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빈곤층,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8대 핵심 과제에 소요되는 내년 예산안 규모는 32조1천억원. 이는 올해 29조1천억원보다 3조원 늘어난 것이다.

전체 가정의 70퍼센트에 해당되는 월 소득 4백50만원(4인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가정에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며,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도 월 소득 6백만원 가정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월 소득 450만원 이하 가정에 보육비 전액 지원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1백만원까지 확대해 취업여성의 출산 여건을 개선하고, 맞벌이나 한부모 취업가정의 12개월 이하 영아를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지원도 월 소득 4백50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우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보육시설을 도입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연장 보육교사도 1만명으로 늘린다.

아동 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순찰 강화와 CCTV 확대 설치로 안전성을 높이고,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등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교육이 서민들의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계고 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며,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해 1인당 연간 5백만~1천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문화향유 기회도 크게 확대한다. 문화·체육·여행바우처 예산은 올해 96억원에서 내년에 3백79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문화바우처 수혜 대상을 현재 가구원 기준에서 가구 단위로 변경해 차상위층 이하 1백70만 가구의 50퍼센트가 혜택을 누리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 안정 지원 위해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 공급

정부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독신과 고령화로 증가하는 1, 2인 가구를 위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확대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방문 간호, 목욕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행정도우미, 도서관 보조사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1만 개 이상 만들어 자립을 촉진한다.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장애아동을 기르는 가정에 파견하는 돌보미 서비스를 2천5백 가구로 확대하고, 뇌병변과 자폐 등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는 언어·음악·미술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문화재 해설사, 자연환경 지킴이 등 노인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20만 개 제공하고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했다.

빈곤층을 위한 지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가 올해 1백36만3천원(4인가구 기준)에서 1백43만9천원으로 5.6퍼센트 인상된다. 이는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두 번째(2005년 7.7퍼센트)로 높은 인상률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대상이 올해 1만 가구에서 1만5천 가구로 확대되며, 지원 규모도 올해 15만원에서 21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늘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계속 지원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돼도 단기간에 민간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추진한다.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건설을 위해 다문화가족에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조기 정착과 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관을 방문해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직접 찾아가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육지도사를 3천2백명으로 늘린다.

또 결혼이민자가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멘터링과 인턴십을 지원하며,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쉼터와 자활지원센터에서 거주하며 양육과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도 예산을 배정했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은 "서민희망 예산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며 "일을 통한 자립 유도, 소득수준을 고려한 취약계층 중심 지원, 건전재정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2011년 서민희망 예산 주요 내용

내용	2010년	2011년(안)
무상보육 대상(4인가구) (맞벌이가구)	월 소득 258만원 이하 (498만원)	월 소득 450만원 이하 (600만원)
양육수당 (대상 연령)	월 10만원 (0~24개월)	월 20~10만원 (0~36개월)
학내외 CCTV 설치	11,543개소	15,351개소
아동안전 지킴이	1,740명	2,270명
전문계고 교육비 지원	(신규)	연간 1인당 평균 120만원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규)	연간 1인당 500만~1,000만원
문화바우처 지원 대상	기초생보자 · 차상위의 8%(35만명)	기초생보자·차상위의 50%(85만 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	18만 가구	21만 가구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8,000가구	11,000가구
장애인 일자리	6,920명	10,300명
장애아가족 지원 대상	688가구	2,500가구
기초노령연금	375만명	388만명
최저생계비 (4인가구)	월 136만3천원	월 143만9천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월 15만원 (3인가구 기준)	월 21만원 (3인가구 기준)
기초수급자 탈수급 시 의료·교육급여 지급	(신규)	8,100명
다문화가족 무상보육	월 소득 258만원 이하	전원
결혼이민자·다문화자녀 방문교육지도사 등 육성	2,240명	3,200명

“희망의 불씨 찾아 신용회복委는 달린다”

서민 소액금융 지원기금 위해 춘천마라톤 도전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지려는 서민들에게 구원의 마중물을 내밀겠다는 각오로 마라톤을 거의 뛰어본 적 없는 초짜들이 뭉쳤다. 신용회복위원회 임직원 28명은 재원이 거의 바닥난 서민 소액금융 지원기금 기부를 호소하기 위해 10월 24일 춘천마라톤 풀코스 완주에 도전한다.



“빈 펌프에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부으면 물을 힘차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나 한때의 실수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됐거나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소액금융 대출은 그야말로 한 바가지 마중물이자 가뭄 끝의 단비와 같습니다. 그 소중한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달립니다.”

30, 40대 직원들 맨 앞줄에 선 홍성표(57)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의 각오가 남다르다.

9월 28일 저녁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 오렌지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 차림의 유니폼을 입은 신용회복위원회 임직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준비운동을 마치고 한강변을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이날의 훈련량은 평소보다 ‘가볍게’ 10킬로미터를 달리는 것. 여의도 선착장 부근에서 출발해 성산대교 반환점을 돌아오는 코스다. 토요일인 9월 25일 35킬로미터를 달린 강훈련에 비하면 ‘몸 풀기’ 수준이다.

금융기관·기업·개인에게 1미터 1원 기부금 호소

신용회복위원회 임직원 28명으로 구성된 이들 ‘마중물팀’은 지난 8월 초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업무를 마친 후 밤 10~11시까지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다. 토요일 집합시각은 새벽 6시 30분. 오전 내내 마라톤 전문 코치에게 매섭게 훈





련을 받는다.

추석 연휴 때도 고향 마을길을 달렸다는 이들은 너나없이 두 달 사이에 몸무게가 5~7킬로그램이 줄 만큼 혹독하게 연습을 했다. 목표는 10월 24일 열리는 춘천마라톤에서 팀 전원이 풀코스인 42.195킬로미터를 완주하는 것이다. 왜 하필 힘겨운 마라톤일까.

마라톤 풀코스를 40차례 완주하고 지난해 은퇴한 '봉달이' 이봉주 선수는 "그냥 달리는 게 좋아서 달렸다"고 했다. 마라톤으로 1년 만에 몸무게를 35킬로그램이나 줄인 요슈카 피셔 전 독일 외무장관은 저서 〈나는 달린다〉에서 "달리기는 자기 개조의 수단"이라고 예찬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임직원들은 좀 더 비장한 이유로 달린다.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지려는 서민들에게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대겠다는 절박한 사명감 때문이다.

이들이 이번에 도전하는 마라톤 캠페인의 이름은 '소액금융 재원 마련을 위한 희망달리기 한마음 기부'다. 이 기부를 통해 마련할 기금은 '새 출발 마중물 기금'으로 정했다. 오는 12월 28일까지의 목표액은 2백억원.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는 9월 중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연합모금을 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과 기업에 기부를 호소하는 동시에 개인들에게도 1미터당 1원 기부금을 요청하기로 했다. 풀코스 완주의 경우 1인당 최소 4만2천1백95원을 기부받겠다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자립을 위해 애쓰는 서민들에게 내미는 구원의 손길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다. 대출 금액은 연리 2~4퍼센트의 저금리로 최고 1천만원이다.


9월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임직원들이 한강 둔치를 달리며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다(오른쪽). 홍성표 위원장(사진 맨 오른쪽)이 직원들과 함께 뛰고 있다(왼쪽).

1인당 310만원은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겐 '희망의 동아줄'

이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모두 2만9천7백22명이 혜택을 받았다. 대출 총액은 약 9백2억원. 해마다 대출 지원이 꾸준히 늘어 올해 들어서만 1만1천7백92명이 총 3백66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1인당 대출금은 약 3백10만원이지만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이 자금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서 중도 탈락해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다시 떨어지려는 사람들을 재기하게 하는 '희망의 동아줄'이죠."

신중호(44)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장은 소액금융 지원의 효과가 통계에서도 입증된다고 말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채무조정을 받은 신용회복 지원 확정자 88만명 중 약 30퍼센트인 25만명이 중도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탈락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금융을 지원받은 경우 중도 탈락률은 0.5퍼센트에 불과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 소액금융 지원기금으로 한 달 평균 30억~50억원을 집행했다. 대출 재원은 시중은행, 공기업 등의 기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이지만, 현재 한 달치 기금을 긴급 수혈받을 정도로 재원이 바닥나면서 소액금융 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임직원들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희망의 불씨를 지피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날 머리털이 희끗희끗한 상사들과 함께 뛴 막내 전상호(33) 경영기획팀 조사역도 결의에 차 있었다.

"이제껏 한 번도 풀코스를 뛰어본 적이 없지만 도전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일어서겠다는 소외계층에게 기필코 따뜻한 손을 내밀겠다는 사명감으로 말입니다."

연습을 마치고 팀원들은 마라톤 구호를 우렁차게 외쳤다.

"달리자 신복위, 새 출발! 마중물 파이팅!"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응원의 뜻으로 '파이팅!'을 외쳐주었다. G

글 · 최은숙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희망기부마라톤 ☎ 02-6362-2083 blog.naver.com/ccrs2009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기부마라톤 후원 seoul.chest.or.kr

여행 경비는 반값, 기쁨은 두 배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게 국내여행 경비 지원

여행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라면 여행바우처를 이용해보자. 여행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으로 올해 약 6천명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혜자가 4만5천명으로 늘어난다.

#1 여행바우처가 비용 때문에 여행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자들에게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하면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외도, 통영여행을 신청했습니다. 여행바우처의 장점은 무엇보다 여행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1박2일 총 여행비가 42만원이었는데, 그중 15만원을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좋은 게 있느냐"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행할 기회가 생겨도 부모님과 함께하기보다 친구들과 가는 일이 많았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모처럼 효도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여행 하면 해외로 나가야 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여행을 계기로 국내여행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유명 관광지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행바우처를 통한 이번 여행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늘 곁에 있는 가족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는 우리 땅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임해진(서울 송파구 문정동)**

#2 지난 8월 22일 여행바우처를 통해 아내와 아들과 함께 '남도 몸보신 별미 기차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장어요리를, 경남 남해에서는 회 정식을 먹고 정말 몸보신한 것 같습니다.

여행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여름휴가 때도 집에서 가까운 계곡에 잠깐 갔다 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줘 신혼여행 이후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여행은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우리처럼 형편이 빠듯한 사람들에게 15만원은 큰돈입니다.

여행바우처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 아내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8개월짜리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는 아내에게 모처럼 남편 노릇 한번 한 것 같아 흐뭇했습니다. **구자형(대전 동구 성남동)**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국내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여행바우처의 인기가 뜨겁다. 지난 7월 12일부터 열흘간 실시된 여행바우처 신청에 10만명이 몰렸고, 여행바우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인기 검색어에도 올랐다.

일상을 떠나 재충전할 기회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여행. 여행은 이제 돈과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됐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비용 때문에 여행 한번 마음 편히 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다. 여행바우처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를 실현하고 나아가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7월 신청 접수를 받아 8월부터 10월까지 1차 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11, 12월에는 2차 여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9월 말 현재 여행바우처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3백여 명. 여행바우처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김재걸 국장은 "아직 여행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10월에 여행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행바우처로 손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국내여행 상품 정보를 e메일로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월 4만6천원 미만이면 50퍼센트 지원

여행바우처의 특징은 국내여행을 취급하는 모든 여행사의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하며 홈페이지의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여행바우처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 월이나 직전 월 소득이 2백12만5천원 이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월 4만6천6백30원 미만인 사람은 50퍼센트, 4만6천6백30원 이상 5만1천6백40



일러스트 · 이우정

원 미만은 40퍼센트, 5만1천6백40원 이상 5만6천6백30원 이하는 30퍼센트의 비용을 지급하며 가족여행의 경우 최대 15만원, 개별여행의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예산을 균등하게 나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여행과 개별여행을 나눠서 선정한다. 지역과 여행 형태 내에서는 소득이 낮은 신청자와 연령이 많은 신청자를 우선한다.

지원은 여행바우처 카드를 통해 이뤄진다. 카드사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여행바우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여행비를 사용한 후 여행바우처 지원금만큼 카드대금에서 차감결제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사람은 체크카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여행 후에 지원금만큼 통장에 입금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행 전에 목적지를 제시해야 한다. 또 예약한 여행상품을 여행바우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최소 1회 이상 해당 여행지에서 여행바우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가족여행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여행 후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여행바우처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복지관광 사업과 통합 운영… 예산 48억원으로 확대

여행바우처는 복지 향상뿐 아니라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를 통한 상품만 대상으로 하며 철도, 항공 등 교통시설이나 스키장 리프트권 등 시설 이용권만 단독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국장은 "여행바우처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 소득에 상관없이 여행이 일상화됐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여행도 복지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여행바우처 사업은 올해 8억원을 투입해 6천여 명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 8억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인 복지관광 사업과 통합 운영돼 48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혜택을 받는 사람도 복지관광을 포함해 올해 1만1천명에서 4만5천명으로 늘어난다. G

글 · 이혜련 기자

여행바우처 ☎ 1544-7000 www.vtour.kr

여민지의 '지' 지소연의 '지'
지~지~지~지~ 한국축구 '소녀시대'

2010 FIFA U-17 여자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FIFA 주관 월드컵 대회 첫 우승의 역사를 일궈낸 U-17 여자축구대표팀. 앳된 소녀들이 한국축구 역사를 거침없이 써내려갈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감동'은 예고되고 있었다. 8골로 팀 우승과 골든볼(대회 MVP), 골든슈(득점왕)까지 거머쥔 여민지의 존재, 최덕주 감독의 리더십만 들여다봐도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릴 때부터 꼬마는 힘이 장사였다. 키는 작았지만 또래 여자아이들보다 발은 10~15밀리미터 더 컸다. 달리기도 잘했다. 운동회 때 계주 마지막 주자는 사내아이들이 아닌 언제나 그의 몫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 꼬마는 우연히 유소년 축구클럽에 갔다. 축구를 좋아하는 오빠를 따라갔는데 주목은 그가 받았다. 키가 10센티미터 이상 큰 사내아이들에 끼여 공을 차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를 지켜본 클럽 감독은 이런 생각을 했다. '저런 축구 센스를 본 적이 없다. 저 아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10년 뒤 한국축구 역사를 바꿀 텐데.' 이후 꼬마의 머릿속엔 온통 축구뿐이었다.

축구부에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하고부터는 날개가 달렸다. 시작하고 얼마 뒤 고학년들을 제치고 주전 자리를 꿰찼고, 대회에 나갔다 하면 득점왕을 휩쓸었다. 중학생 땐 전국구 스타 반열에 올랐다. 경남 함안군 함성중학교 재학 시절 14세 나이로 19세 이하 대표팀에 뽑혔다.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형 천재 여민지

당시 19세 이하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던 이영기 감독이 "함성중에 괴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보러 갔다가 한눈에 반해 발탁했다. 이 감독은 "온몸이 무기다. 다른 나라 선수가 아닌 게 정말 다행"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대표팀에서 유일한 중학생에게 이런 호평을 내린다는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

소녀의 재능을 하늘이 질투했을까. 밝은 빛만 비칠 것 같던 그의 앞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2008년 4월 경기 도중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식욕이 없어지고 말수도 줄었다.

낙담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뒤 훌훌 털고 일어났다. 그가 중1 때부터 꾸준히 써온 일기장엔 이맘때 '파이팅'이란 문구가 머리말로 자주 등장했다.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약해질

동아DB





▲ 세계 최고의 여자축구 스타로 혜성처럼 등장한 여민지. 결승전 시상식에서 골든슈를 번쩍 들고 기뻐하고 있다.
◀ "이제 한국 소녀들의 시대랍니다." FIFA U-17 여자월드컵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U-17 대표팀 선수들이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때마다 스스로 다잡기 위해 그렇게 썼다. 당시 그의 재활을 도운 의사는 이렇게 회상했다. "성인 남자도 힘든 빡빡한 재활 과정을 묵묵히 견뎠죠.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끈기가 대단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그 '뭔가'가 '축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상보다 이른 지난해 1월 소녀는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하지만 자신감을 잃은 게 문제였다. 그라운드가 낯설게 느껴졌다. 소녀가 다니는 함안 대산고 김은정 감독은 "공을 잡을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다. 어떻게 자신감을 심어줄지 막막했던 상황"이라고 당시를 기억했다.

지소연-여민지 "한국 여자축구 세계에 알리겠다"

소녀가 스스로 내린 정답은 훈련이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인생지사 새옹지마. 누구에게나 삶을 깨우는 질문은 찾아온다. 그 질문을 수신하느냐, 거부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소녀는 '부상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훈련'이라는 키워드로 수신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땀을 흘렸다. 덕분에 킬러 감각을 되찾았고 월드컵을 앞두고 괴물로 돌아왔다.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사는 노력형 천재. 여민지(17) 이야기다.

이번 대회를 통해 월드 스타로 자리매김한 여민지의 이름이 나올 때면 항상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지난 8월 U-20 여자월드컵에서 '실버볼(득점 2위)'을 차지하며 한국을 3위로 이끈 지소연(19·한양여대)이다.

타고난 축구 지능에 컴퓨터 패스, 정교한 슈팅이 장점인 지소연과 힘, 스피드, 골 감각의 3박자를 갖춘 여민지가 '듀오'로 활약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팬들은 흐뭇하다.

최인철 성인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은 최근 둘을 성인 대표팀에 합류시켜 팬들의 기대치를 높였다. 9월 29일 오후 17세 이하 대표팀 환영연 및 해단식에 깜짝 등장한 지소연은 "민지와 함께 한국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 뛰고 싶다"고 밝혔다. 여민지도 이 자리에서 "소연이 언니와 뛸 수 있어 흥분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물론 성인 무대에서 두 선수가 당장 정상급 활약을 펼치긴 쉽지 않다. 이미연 여자축구 부산 상무 감독은 "여자선수들은 한 살 차이만 나도 기량 차이가 크다. 경기 운영능력이 확실히 다르다"고 했다.

한국은 2011년 성인 여자축구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5년 월드컵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여' 듀오가 전성기로 접어드는 이 시기엔 한국이 세계무대를 호령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G 글 · 신진우(동아일보 스포츠레저부 기자)

'아버지 리더십' 보인 최덕주 감독

"훌륭한 선수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


동아DB

"어리잖아요. 밝은 새싹들에겐 꾸짖기보다는 칭찬으로 자신감을 심어줘야죠."

한 골만 더 허용하면 짐을 싸 귀국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감독으로서 흥분할 법도 한데 표정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아버지 같은 푸근한 인상으로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잘하고 있다"며 박수를 쳤다. 스트라이커 여민지도 "긴장감에 심장이 쿵쾅거리다가도 감독님 얼굴만 보면 아버지를 보듯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한다.

17세 이하 여자축구 월드컵에서 태극소녀들을 이끌고 우승컵을 품에 안은 최덕주(50) 감독. 그의 '아버지 리더십'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선수 시절 그의 국내 경력은 중앙대를 졸업하고 한일은행(1984년)과 포항제철(1985년) 두 시즌을 뛴 게 전부다. 1990년에 은퇴한 그는 지도자의 길을 선택했다. 2004년까지 일본의 고교, 대학, 실업 팀들을 두루 거치며 지도자 수업을 받은 그는 한국에 돌아와선 섬세하고 예쁜 축구를 하는 여자축구의 매력에 빠져 17세 이하 여자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그는 어린 선수들에게 "축구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나무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나무 1개는 약해도 10개가 모이면 무엇보다 단단하다"며 조직력이 팀의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리더십에 오랜 기간 '공부하는 지도자'로 갈고닦은 경험이 더해져 팀을 성장시켰다.

월드컵 우승 귀국 기자회견에서 최 감독은 특유의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누가 감독을 맡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냈을 겁니다.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리더십'은 경기장 안팎에서 진한 감동을 발산하고 있다.


연합

"꿈만 같아요." 세계를 제패한 U-17 여자대표팀 선수들이 또다시 대박을 맞았다. 9월 29일 청와대가 대표 선수 환영 행사에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꼽은 남성그룹 '샤이니'를 깜짝 초대한 것. 행사가 끝난 뒤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최덕주 감독 및 선수들, 샤이니 멤버들이 기념 촬영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수 비결? 욕심 없이 순리대로 살았지"

'한국 법조계 역사' 99세 김병두 변호사

놀랍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무려 한 세기에 걸쳐 한길만을 걸어온 인생 여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을 뿐이다. 대한민국 최고령 법조인 김병두 변호사.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을 두 번째 앞두고 있는 그는 여전히 법조계에서 건재하다는 자체만으로도 귀감이다.

김병두 변호사는 1912년생이다. 지난 7월 백수연(白壽宴·99세 생일잔치)을 치렀다. 자녀는 8남매이고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에 증손들만 해도 1백명에 가깝다.

그의 1백 년 인생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가락 수 계산이 더 쉽지 않다. 33세 때인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누렸고, 이듬해 판검사 특별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최고령 변호사다. 법조인 경력만 따져도 환갑을 훌쩍 지난 셈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나이지만 그는 정정하다. 아직도 평일 아침이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강원 원주시 치악종합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주로 공증 업무를 본다. 산더미 같은 서류들의 깨알 같은 글자들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인데도, 지금까지 무리 없이 해내고 있다. 그래서 주변 법조인들에겐 신(神)이나 다름없다. 함께 일하는 4명의 변호사에게도 마찬가지다.

또랑또랑한 목소리, 노인들이 많이 쓰는 돋보기가 아니라 근시용 오목렌즈를 쓰는 모습에서 놀라고 또 놀란다. 86세까지는 직접 재판정에 나가 변론까지 했다. 오히려 '지금도 변론을 할 수 있는데' 하는 자신감을 보인다. 아쉬운 건 단 하나. 김 변호사는 "예전엔 더 훤칠했는데 나이 드니까 키가 많이 작아졌다"며 껄껄 웃었다.



지난 7월 백수연 잔치를 앞두고 아들 집을 찾은 김병두 변호사.
1백 년 가까이 살면서 유일하게 아쉬운 건 키가 작아진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이 '1백 세를 앞둔 현역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비결을 묻지만 그의 대답은 간단하다.

"비결? 없어. 그저 욕심 안 내고 자기 일에 꾸준하게 충실하면 돼. 가능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맨손체조도 좀 하고…. 나라고 술, 담배 안 했겠어? 하루에 담배 한 갑, 정종도 '한 되'씩 먹었는데 환갑 지나고 다 끊었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어."

"나이 드니 키가 많이 작아져 아쉽다"

그의 경력은 곧 한국 법조계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북 상주 태생인 그는 판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3년 뒤 전남 장흥지청 검사로 부임하며 대한민국 검찰의 틀을 다지는 데 일조했다. 이후 서울지검, 순천지청, 강릉지청 등을 거쳐 원주지청장을 끝으로 197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 뒤에도 변호사 경력만 40년이다.

"왜 한창 일할 때 검찰을 떠나셨냐"고 물으니 "후배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버틸 자신이 없더라"는 재치 있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참 많은 일을 겪었다. 그가 법조계에서 겪은 일들을 회상해도 후배들에겐 좋은 역사서가 될 듯하다. "1949년엔 서울지검 검사가 검사장, 차장까지 합쳐 고작 17명이었어. 내가 검사 하는 동안 6·25전쟁도 일어나 도중에 피난도 다녀왔어. 4·19혁명에 5·16군사정변도 벌어졌지. 지금 검찰 후배들은 그런 장면 상상도 못할 거요."

김 변호사에게 지난 세월은 무엇일까. 역시 아쉬움을 남기는 존재라는, 누구나 말하는 정의가 내려졌다.


조선일보

1970년 변호사 개업 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마다하지 않았던 김 변호사는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변호사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같이 늙어가던 법조계 동기들은 다 떠나고, 집사람마저 3년 전에 가고, 이젠 나만 남았다. 시간이 얼마 지난 것 같지도 않은데… 세월 참 빠르다"고 했다.

법조인 외길 인생. 그에게 변호사란 어떤 직업일까. "재판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눈앞의 이득을 노리고 억지를 부리면 나도 변호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잡아왔지. 실제로 순리를 거스르고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봤어."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변호사의 도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많이 맡았던 변호사로 알려진 그는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우리 직업의 도리이기 때문"이라는 말로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정의했다. 막말 판사 논란, 스폰서 검사 파문에 변호사들끼리의 밥그릇 싸움까지 올해 법조계는 시끄러운 일들이 적지 않다. 변호사의 도리를 말한 그는 까마득한 후배들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법조계에 대해서도 애정 어린 질책을 이어갔다.

"법대로,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일에 눈 돌리고 욕심 부리니까 시끄럽고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재판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눈앞의 이득을 노리고 억지를 부리면 나도 변호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잡아왔지. 실제로 순리를 거스르고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봤어."

김 변호사는 서울 후암동에 42년 된 낡은 양옥집을 갖고 있다. 푸른 남산 자락을 뒤로하고 서 있는 집은 고풍스럽다. 외벽은 담쟁이덩굴로 뒤덮여 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서예 액자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다. 주말이면 원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집을 지키고 있는 둘째 아들 부부와 지내면서 인근 남산에 올라 산책을 한다.

주말에 김 변호사는 둘째 며느리 김필란(61)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온다. 이렇게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며느리 김 씨는 "아버님은 재판 결과에 크게 연연하신 적도, 아랫사람에게 모진 소리를 하신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을 안 하시니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G

글 · 정지섭(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세미나 참가자들은 강의에 이어 직접 유물을 관람하며 전통문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말한다.

'박물관'엔 아이디어가 전시되었다?

'박물관과 공예 · 디자인의 만남–문양의 재해석' 세미나

공예 · 디자인 전문가들이 문화의 보고(寶庫)인 박물관에서 콘텐츠와 정보를 교류하는 세미나가 올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우리 유물과 전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디자인이 탄생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칼 손잡이에 새겨진 무늬와 그림을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빗살무늬도 좋았는데 이번에는 직선과 원을 시도하셨군요. 태양의 힘을 상징하는 듯한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약 4천 년 전 청동기시대에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지난 8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물관과 공예 · 디자인의 만남–문양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의 첫 번째 시간 '청동기 속 문양의 재해석' 강의를 듣고 떠올린 상상이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물에 표현된 문양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통과 현대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영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공예 및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다.

"청동기 문양이 현대 디자인에 생명력 불어넣을 듯"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서정화 교육홍보부장은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세계적 선풍을 일으킨 애플사의 수석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는 미국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문화의 보고(寶庫)인 박물관을 찾아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우리 문화의 기

조영철 기자

초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디자인문화가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지난 1월 국립중앙박물관을 시작으로, 2월 고판화박물관(강원 원주), 3월 온양민속박물관(충남 아산), 4월 혜곡최순우기념관(서울), 5월 세계장신구박물관(서울), 6월 세계술문화박물관(충북 충주)을 거쳐 7월에는 다시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각 전문 분야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을 직접 찾아 현장에서 유물을 보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시간으로, 모집 공고가 나가면 하루 내지 이틀 만에 접수가 종료되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청동기 속 문양의 재해석'을 발표한 국립중앙박물관 조현종 학예연구실장은 "삼국시대 금속공예품이나 통일신라 시대 기와, 고려청자 등을 응용한 디자인 연구는 이미 활발하다"고 말했다.

"오방색은 우리 문화 표현할 수 있는 경쟁력 갖췄다"

또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 유물 속에 당시 사람들의 미적 감각과 공간 구성력을 볼 수 있는 정교하고 다양한 무늬가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인류가 금속을 처음으로 사용한 시기인 청동기시대는 의례와 제사가 처음 시작된 때로 이 시대 문양에는 기원과 염원의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과 점을 이용해 해, 별, 번개 등 경외의 대상이 되는 자연의 숭배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 정교하고 치밀한 구성과 장식을 통해 지배자의 권위를 높이는 문양이 쓰였음을 볼 수 있다.

우리 청동기 유물이 얼마나 정교한가 하면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多紐細紋鏡·고리가 여러 개인 잔무늬 청동거울)은 0.013밀리미터의 선이 13만 개 들어 있는 번개 문양을 어떻게 새겨 넣었는지 현대의 기술로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을 정도다.

"청동기 문양이 시공의 차이를 극복하는 현재화와 창조적 응용을 통해 현대 디자인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 실장의 강의를 들은 후 참가자들은 박물관 전시실로 자리를 옮겼다.

강의에 등장한 울산 반구대 암각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자로 인식한 새의 모양으로 만든 토기, 기하학적 문양을 새긴 청동 거울,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문양이 들어 있는 팔주령, 번개 문양 등을 손잡이에 새겨 사용자의 권위를 한껏 높인 여러 가지 형태의 청동 무기류를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했다.

세미나의 2부 순서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이명주 교수의 '오방색과 함께하는 장신구' 강의였다. 가야금 모양의 장신구 케이스, 오방색으로 한글을 패턴화한 브로치, 5개의 적색 항아리를 연결한 모양의 목걸이 등 음양오행 사상을 담은 우리 민족 고유의 색채인 오방색이 현대 예술작품에서 응용된 사례가 제시됐다. 이 교수는 "오방색은 우리 문화를 잘 표현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참가자 중 수원에서 온 도예가 김혜중 씨는 "강의와 함께 전시실에서 직접 유물을 관람하며 설명을 들으니 더욱 이해하기 쉬웠다. 한 주제를 놓고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는 세미나가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물관과 공예·디자인의 만남 세미나는 매달 두 번째 수요일마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10월에는 '경주, 고대도시 천년문화의 재해석', 11월에는 '도자기 속 문양의 재해석', 12월에는 '불교조각 속 문양의 재해석'이 진행된다.

특히 10월에 열리는 세미나는 국립경주박물관 및 인근 유적지에서 1박2일 동안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매달 1일부터 30명씩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G

글·오진영 객원기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02-398-7925 www.kcdf.kr

박물관과 공예·디자인의 만남 일정

일시	장소	주제	주요 강사
10월 6, 7일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고대도시 천년문화의 재해석	민병훈 아시아부장
11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	도자기 속 문양의 재해석	구일회 역사부장
12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 속 문양의 재해석	곽동석 미술부장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多紐細紋鏡). 0.013밀리미터의 선이 13만 개 들어 있는 번개 문양을 어떻게 새겨 넣었는지 현대의 기술로도 밝혀내지 못했을 정도로 정교하다.



동아DB



입추, 처서… 영어로는 뭘까요?

〈한국세시풍속사전 영문편〉 낸 민속박물관 안정윤 학예연구사

말복, 처서, 입추, 단오 같은 절기를 외국인에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우리에게는 친숙한 민속문화지만 외국인들에게 이해시키려 한다면 난감할 때가 많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 국립민속박물관이 발간한 〈한국세시풍속사전 영문편〉을 참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을 세계에 홍보하는 책자들은 간단한 안내 책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한국세시풍속사전 영문편〉은 한국의 민속문화를 영문으로 소개하는 첫 사전이라 다문화시대의 쌍방향 소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영문사전 발간에 참여한 안정윤(37)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한국사 박사과정)의 설명이다. 이번에 펴낸 영문사전은 24절기와 각 절기에 연관된 풍속을 6권에 담아 2007년에 국립민속박물관이 펴낸 〈한국세시풍속사전〉의 내용을 2백30개 항목으로 압축해 한 권으로 만든 것이다. 사전의 구성도 세시풍속의 순환주기를 그대로 담아 각 장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성하고 각 달마다 명절과 절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6백50여 장의 사진을 수록해 세시풍속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안정윤 학예연구사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민속문화적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번 영문사전 발간에서 가장 어렵고 공이 많이 든 부분은 그 의미를 번역하는 작업이었다고 한다. 안 연구사는 "세시풍속의 이름을 단순히 직역하는 것만으로는 외국인들이 민속문화적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 문화 전문가와 영어 전문가가 협의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보완 작업에 힘썼다"고 말했다.

명절·절기 소개… 6백50여 장의 사진으로 이해도 높여

"용왕을 예전에는 글자 그대로 '드래곤 킹(Dragon King)'으로 번역했는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바다의 신, 물의 신을 의미하는 '드래곤 갓(Dragon God)'으로 표기했습니다."

삼복(三伏)은 예전엔 '도그 데이즈(Dog Days)', 즉 삼복의 시기가 서양의 별자리인 큰개자리가 태양과 같이 떠오르는 시기와 일치한다고 번역돼 모호한 느낌이 있었다. 이번엔 '음력 6월과 7월 사이 여름의 가장 더운 시기(Three Hottest Days in the Sixth and Seventh Lunar Months)'라고 자세히 풀이했다.

'솔잎을 재료로 만든 떡(Pine needle rice cake)'이라고 번역됐던 송편도 '솔잎과 함께 찌는 떡(Rice cake steamed with pine needles)'이라고 더 정확하게 수정했다. 영문 번역의 감수는 한국문화를 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티머시 탱걸리니 교수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영국 출신 한국 귀화인 채리아 씨가 맡았다.

안 연구사는 〈한국세시풍속사전〉에 이어 앞으로 〈한국민속신앙사전〉 등 총 7편을 추가 편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각 사전의 영문편 및 웹사전 편찬을 계속해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G

글 · 오진영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차례大路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새치기는 삼가주세요. 당신의 시간만큼 상대방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있는 자의 고민

글과 그림·최영순



아, 돈, 돈!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슬픈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 톨스토이

삶을 '꼬닥꼬닥' 살 순 없을까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자신을 되돌아볼 여유가 많지 않다. 하지만 휴식 없는 빡빡한 삶은 사람을 쉽게 지치게 만든다. 이럴 때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해주는 독서는 좋은 취미다. 책을 통해 가고 싶었던 곳을 만날 수 있고,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을 채울 수 있다.

이달에도 어김없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문학, 역사, 철학 등 10개 분야와 관련된 10권의 읽을 만한 책을 추천했다. 그중 눈에 띄는 책은 대한민국을 '걷기' 열풍으로 이끈 제주 올레길에 관한 〈꼬닥꼬닥 걸어가는 이 길처럼〉이다.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리게 걷기'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전도한 사람, 제주올레 이사장 서명숙 씨가 펴냈다. 책 제목에 쓰인 '꼬닥꼬닥'은 제주 말로 '서둘지 말고 천천히'라는 뜻이다.

이 책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까지, 길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손수호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이 책을 추천하면서 "속도전의 문법에 익숙한 현대인이 걷는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고 대화하면 자유와 평화, 사랑처럼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주 올레길이 걷기의 재발견으로 삶의 여유를 안겨준다면 초원 실크로드는 역사의 재발견을 통해 삶의 지혜를 알려준다. 문명교류학 관련 국내 권위자로 꼽히는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장이 펴낸 〈초원 실크로드를 가다〉가 그것이다.

저자는 2007년부터 2년간 답사단과 함께 유라시아대륙의 북방 초원지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초원 실크로드를 걸으면서 초원 문명을 잉태하고 전파시킨 소통의 길로서 이곳을 새롭게 조명했다. 초원 실크로드 주요 지역의 문화유산, 역사, 현재 상황을 기록하고 생생한 사진 자료 3백여 장을 수록했다.



김기덕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초원 실크로드를 통해 과거 동서 문화교류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올바른 삶의 좌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사에서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www.kpec.or.kr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이별하는 골짜기

임철우 지음 · 문학과지성사 펴냄
6년 만에 신작을 발표한 임철우 작가의 소설로 강원 정선군의 버려진 간이역을 배경으로 했다.
추천자 정과리(연세대 국문과 교수)



초원 실크로드를 가다

정수일 지음 · 창비 펴냄
동서문화교류사에서 잘 소개되지 않았던 '초원 실크로드'를 전문적인 시각으로 소개한다.
추천자 김기덕(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앤서니 루이스 지음 · 박지웅 이지은 옮김 · 간장 펴냄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통해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들을 이해할 수 있다.
추천자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금융의 지배

니얼 퍼거슨 지음 · 김선영 옮김 · 민음사 펴냄
과거 금융의 역할을 조망하면서 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했다.
추천자 박원암(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덕환의 사이언스 토크토크

이덕환 지음 · 프로네시스 펴냄
일상생활이나 광고, 뉴스에서 언급된 과학상식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과학 뉴스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
추천자 장경애(동아사이언스 경영기획실장)



클래식을 좋아하세요?

김순배 지음 · 갤리온 펴냄
어렵고 고상한 음악이라는 편견을 지닌 클래식 음악을 주변의 삶과 연관시켜 소개한다.
추천자 이주은(성신여대 교육대학원 교수)



변호사 논증법

최훈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논리적 사유방식을 알려준다.
추천자 김형철(연세대 철학과 교수)



고전, 대중문화를 엿보다

오세정 조현우 지음 · 이숲 펴냄
지금 이 시대에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알려준다.
추천자 탁석산(철학자)



꼬닥꼬닥 걸어가는 이 길처럼

서명숙 지음 · 북하우스 펴냄
국내 올레 신드롬을 일으킨 저자의 길에 관한 철학을 담고 있다.
추천자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강치야, 독도 강치야

김일광 지음 · 강신광 그림 · 봄봄 펴냄
아이들이 독도 사랑과 동물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한 그림책.
추천자 오은영(동시·동화 작가), 서정숙(그림책 평론가)

가을바람 타고 찾아온 러시아 오페라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오페라발레극장의 〈프린스 이고르〉

지난해 오페라 〈카르멘〉을 통해 놀라운 예술성을 보여준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오페라발레극장이 이번에는 러시아 오페라의 미학을 집대성한 작품 〈프린스 이고르〉로 우리나라를 찾는다. 볼쇼이, 마린스키극장과 더불어 러시아 3대 국립극장으로 유명한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오페라발레극장이 선보이는 〈프린스 이고르〉는 총 2백50여 명의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웅장한 스케일을 표현해야 하는 제약으로 그동안 국내 무대에는 좀처럼 오르지 못했다.

러시아 건국기인 12세기, 노브고로드의 공작 이고르가 남방 유목민족을 정벌하려다 포로로 잡힌 뒤 탈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은 러시아 작곡가 알렉산드르 보로딘(1833~1887)의 대표작이다. 러시아 서사문학에 나온 16세기의 영웅시 〈이고르 공의 원정기〉와 승원(僧院) 문서 〈이파테프스키 연대기〉를 바탕으로 보로딘 자신이 대본을 만들었다.

음악은 보로딘의 작품답게 민속적인 색채감이 뚜렷하다. 특히 춤과 발레가 어우러진 '폴로베츠인의 춤'은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쳐 관현악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국적 정취가 가득한 여성 합창 '바람의 날개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광고음악으로도 자주 쓰이는 유명한 곡이다.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오페라발레극장 음악감독이며 상임지휘자인 예브게니 볼린스키는 "오페라 〈프린스 이고르〉의 한 축은 러시아 역사지만 가족 간, 민족 간의 모든 인간관계가 담겨 있어 한국 관객들도 쉽게 이해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일시 10월 7~10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후4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IP석 25만원, R석 20만원, S석 15만원, A석 10만원, B석 5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650-7481~2 www.sac.or.kr

● **연극 〈한여름 밤의 꿈〉**

멘델스존의 음악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 신비로운 요정의 세계. 독일 칼스루에 국립발레단이 공연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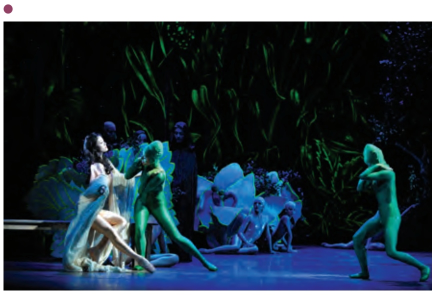
일시 10월 8일 오후 8시, 9일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 **2010 구례 동편소리축제**

지리산과 섬진강을 무대로 펼쳐지는 동편제의 대향연. 창극 〈산수유〉와 구례풍물단이 이끄는 거리 퍼레이드는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다.

일시 10월 8~10일 **장소** 전남 구례군 서시천 체육공원 일대 **관람료** 무료
문의 061-780-2727~8 www.guryesori.com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태권도장에서도
축구교실에서도
수영장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이의 밝은 미소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대한민국 희망쿠폰 스포츠바우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스포츠바우처제도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10년 한해에만 60억원의 예산으로 14,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스포츠강좌를 이용하며
운동용품 지급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스포츠바우처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KSPO 케이스포 | 국민체육진흥공단